

파주문화

2014

영원히
살기
위치는
꿈을
꾸고
작을
오를
살자

이희삼사인
순희



제28호

파주이야기 | 문화트렌드 2014 | 파주문화 포커스
파주문화원 365 | 파주문화광장 | 삶의 향기 | 파주의 책

 파주문화원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갑오년(甲午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4년 한 해 우리고장 파주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활동들을 정리하고, 파주문화원의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마무리로 『파주문화』 제28호를 발간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발행하는 『파주문화』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간 여러 이유로 해서 『파주문화』와 『파주연구』를 합본해 『파주문화연구』로 수년째 발행해오던 것을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재정비와 때를 같이 해 『파주연구』를 복간(復刊)하고, 『파주문화』를 문화 소식지로 구분했습니다.

새롭게 발간하는 『파주문화』에는 현 시대 파주의 문화예술적 소식들과 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파주사람들의 이야기, 문화원의 연간 활동내용 등을 담고자 했습니다. 역사적 학술적 연구 글들은 『파주연구』를 통해 품격 있는 모습으로 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주문화』 28호에서는 이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파주 우(牛)시장’의 기억을 더듬어보고, 짚풀공예의 장인(匠人)으로 인정받고 계신 장춘금 어르신, 30년이 넘도록 매일 일기를 쓰고 계신 조팽기 어르신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2014년을 통해 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요 소식들을 전합니다. ‘문화체육자원봉사(CSV)’와 ‘경기도메모리(Memory)’, 그리고 경



파주문화원장 우관제

기도 문화원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페스티벌 31’에 대한 소개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에 비친 파주문화원의 현 주소도 담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의 이야기할머니들, 파주에서 진행되는 문화유산 답사를 이끌고 있는 문화원 문화유산해설사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보다 알차고 가치 있는 소식을 많이 담아야 하지만 미숙함이 많은 변화였습니다. 회원님들에게 문화원의 활동소식을 알리고, 문화예술계의 1년 활동을 정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한 해 파주 지역문화의 종합적 기록물이자 문화적 교양서로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파주문화』 제28호가 ‘문향 파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시대의 문화예술적 담론(談論)을 담은 이야기 창고(倉庫)로서 문화가족들과 파주시민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읽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파주문화 제28호

문화비전 선언문
발간사



05 파주이야기

파주 卍시장 이야기
조팽기님의 일기 : 장미꽃 피기 시작하여 자꾸 핀대
장춘금님의 짚풀이야기 : 풀 향기 가득한 시간에
파주고지도 4選

29 문화트렌드 2014

문화체육 자원봉사시스템(CSV)과 지방문화원
경기도메모리와 지방문화원
페스티벌 31

45 파주문화 포커스

파주문화원 우관제 원장님을 만나다
동행, 파주문화의 전방위 안내자 파주문화유산해설사회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59 파주문화원 365

2014 갑오년 대보름 연날리기 한마당
제16회 짚 · 풀문화공예품 공모전
문화가족 역사문화유적지 순례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제27회 율곡문화제
파주문화학교 · 어르신 문화학교
뛰뛰뱅뱅! 주말버스학교
향토유적답사
평생학습관 : 전통문화체험학교
평생학습관 : 문화유산해설사 파견
제47회 창립기념식 및 제14기 문화학교 수료식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우수전통 민속보존 지원사업
유교문화행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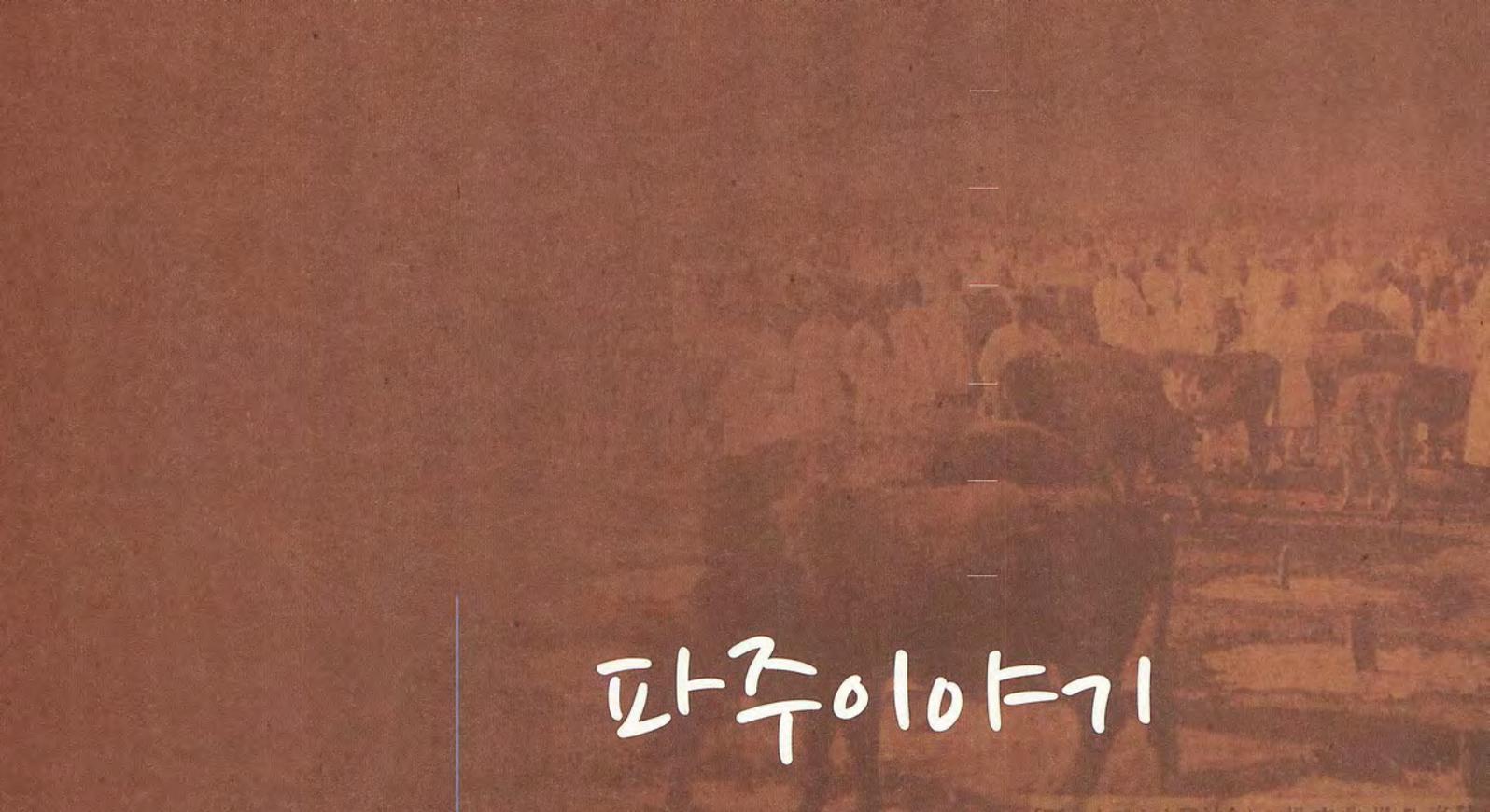
85 파주문화광장

제32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제19회 파주 시민 · 학생 문예작품 공모전
제22회 파주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제12회 어린이 책잔치
제7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제2회 파주청소년연극제
제16회 파주예술제 : 藝香 속으로-예술아 놀자
2014 환경도예가회 특별전 - 한일도예교류전
제4회 파주포크페스티벌(PAFF)
2014 파주 헤이리 아트 페스티벌
제5회 평화사랑가족연극제
파주 우리소리 전국 국악(실버) 대제전
전국울곡서예대전
파주북소리 2014
제5회 파주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제27회 율곡문화제
레벨스크 시 예술학교&파주청소년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제10회 파주개성인삼축제
제18회 파주장단공축제
제5회 파주평생학습박람회
제19회 파주서예대전
2014 찾아가는 미술제 한 · 중 국제교류전
제23회 경기연극올림피아드 대상작 '심상냉장고' 공연
파주시민을 위한 국악콘서트 호연에 반하다
2014 임진각제야행사
2014 파주시립예술단 공연

99 삶의 향기

거제포로수용소에서 아버지를 만나다

102 파주의 책



파주이야기

(財) 파주시농업진흥재단 (財) 파주시농업진흥재단

파주牛市장 이야기

조팽기님의 일기
장미꽃 피기 시작하여 자꾸 핀다!

장춘금님의 짚풀이야기
풀 향기 가득한 시간에

파주 고지도 4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억, 파주의 **우시장** 이야기

누렁소 팔려 가던 어린 날의 추억

음메~~ 음메~~ 음머~~ 음머~~.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외양간의 누렁소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틈문을 열고 밖을 보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흰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아버지가 외양간의 누렁소를 힘겹게 끌어내고 계셨다. 발꿈치에 안간힘을 주며 버티는 누렁소와 한참을 씨름하시던 아버지는 이내 누렁이를 끌고 대문 밖을 나섰다. 아버지를 배웅하는 어머니의 손이 연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어둠속으로 희미하게 보였다. 수년 동안 가족들과 정들었던 누렁소가 우시장에 팔려 나가는 날이다.

일곱 살 어렸을 적 기억이지만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누렁소의 울음소리는 대문을 나선 후에도 한참을 메아리치듯 들렸다. 점점 멀어져가는 울음소리를 듣다가 이내 이불을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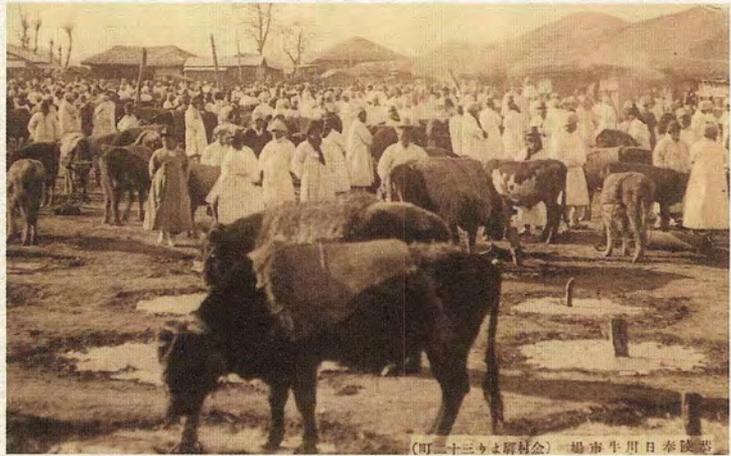
어릴 적 엄하신 아버지가 부여한 누렁소 풀 뜯기는 일을 몹시도 싫어했던 내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왜였을까?

우시장에 가셨던 아버지는 점심때를 훌쩍 넘긴 후에야 얼큰하게 취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두루마기 속에서 말없이 두툼한 누런 봉투를 어머니에게 건네주셨는데 누렁소를 내다 판 돈 같았다. 그러나 그 돈이 무엇에 쓰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경기도 4대 가축시장, 봉일천 공룡 우시장

금촌 가축시장이 명맥 이어, 이제는 그나마 사라져

사진은 일제시대 대시(大市)를 이룬 봉일천 우시장의 풍경이다. 사진 속의 소와 소 주인이 각각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당시 공릉 우시장 규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금촌역으로부터 32정(三十二町)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금촌역에서 약 3.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정든 소를 떠나보내는 이별장소, 우시장

농경민족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 소는 일상에서 가장 친숙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으로, 또한 급하게 목돈이 필요 할 땐 가장 손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귀중한 재산으로 여겨 왔다.

그래서 옛날 우시장에 끌려 나온 소들과 소 주인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하기만 했다. 목돈이 필요해 소를 팔러 왔지만 소 주인들은 우시장이 그동안 정들었던 소와 헤어지는 이별장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값을 잘 받거나 값을 못 받거나 그래서 우시장은 이별의 아픔이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소 거래가 끝나면 소를 떠나보낸 주인들은 허전함과 슬픔을 한 그릇의 국밥과 막걸리 한 사발로 달래곤 하였다. 그래서 옛날 우시장에는 국밥집을 비롯한 대포집들이 늘 성황을 이루었다. 또 한편에서는 줄타기 공연도 펼쳐지고 약장수의 요란한 입담과 군데군데 벌어진 투전판도 진풍경이었다.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옛 우시장의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나마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지금의 우시장 풍경은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경기도 4대 우시장에 꼽혔던 봉일천 공릉 우시장

보통 우시장(牛市場)은 쇠전, 쇠장, 소시장 등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소시장에서는 돼지나 개, 염소 같은 가축들의 거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가축시장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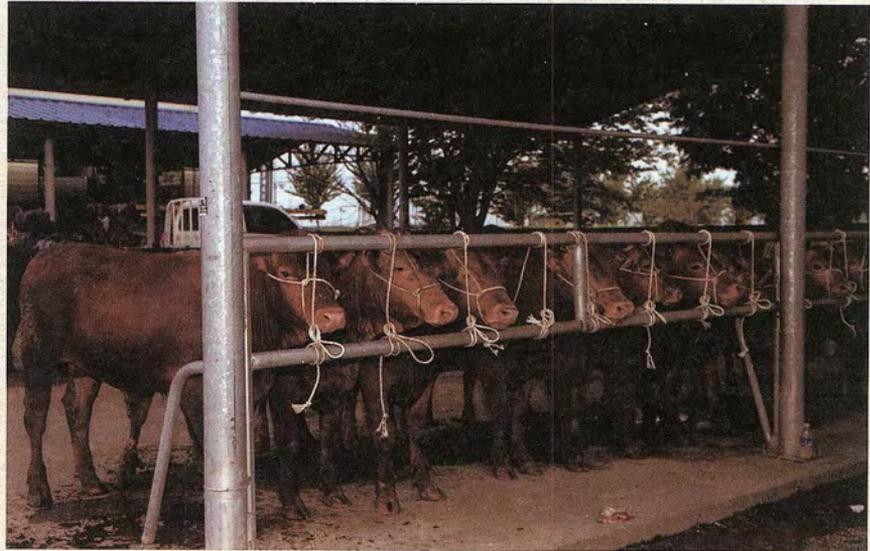
조선시대 우시장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단지 어느 우시장의 규모가 크고 거래되는 두수가 많다는 정도일 뿐이다. 1918년 말 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전국의 가축시장 수는 655개소나 되었다. 이 시기는 조선시대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때라 독립된 가축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경기도에는 모두 47개소의 가축시장이 있었는데 이 중 파주 봉일천 공룡장의 소시장은 경기도 4대 우시장에 속하는 매우 규모가 큰 시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1926년 봉일천장 거래금액을 상품종류별로 보면 총 거래금액 36만 378원 가운데 소의 거래금액이 31만 5,420원으로 87.5%를 차지함으로써 일반상품보다는 소시장 중심의 대시(大市)였음을 알 수 있다.

봉일천장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2·7일 장으로 재개되었다. 그러나 전쟁 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과거 봉일천장이 전국적인 대시로 명성을 떨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해 온 가축시장이 1·6일 장인 금촌장으로 이전해 간 것이다.

1980년대까지 성시를 이룬 금촌 가축시장

봉일천장의 가축시장이 금촌장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행정관청의 행정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전쟁 후의 상황변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봉일천장은 전쟁 후 상당 기간 동안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이 되었다. 1953년 휴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후에도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는 전시상황이 연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문산까지 당시의 좁은 국도는 군용차량만이 분주히 왕래할 뿐 민간 교통수단이 없었다. 더구나 당시 이 국도는 군용차 전용의 비포장 도로였으며, 도로가 봉일천 장터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봉일천의 장터마을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온통 군용 차량의 흙먼지가 연일 연기처럼 자욱하여 마을조차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금촌은 대량 교통수단인 기차역이 있고 기차는 전쟁 직후 어느 교통편보다도 먼저 왕래했기 때문에 정기시장의 재개와 더불어 인파는 봉일천보다 금촌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가축을 사고팔 사람들조차 봉일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촌장이 열리는 날 금촌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가축시장은 저절로 금촌장으로 옮겨졌고 봉일천장의 가축시장은 자연 폐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가축시장을 잃은 봉일천장은 이후 일반상품시장마저도 쇠퇴의 길을 거듭하여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 후 봉일천장에서 이전된 금촌 가축시장은 처음 금촌사거리 북쪽(구 시외버스터미널) 산 기슭 공지에 잠시 개설되었다가 현 등기소 앞쪽의 넓은 공지로 옮겨졌으며 그 뒤 다시 현재의 경기도 파주병



1996년 송아지 경매시장에 나온 소들

원(도립병원) 앞쪽의 금능리로 이전되었다가 현재의 금촌체육공원 옆 파주축협 유통사업부 부지 내로 옮겨져 모두 네 차례나 옮겨졌다.

금촌 가축시장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매우 성시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면서 금촌 우시장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1991년도 금촌 가축시장의 실적을 보면 연간 총 7,592마리의 소가 출장하여 4,799마리의 소가 거래됨으로써 63.2%의 거래 실적을 보였는데 이것은 매 장당 평균 105마리의 소가 출장해 70여 마리의 소가 거래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금촌 가축시장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1996년 금촌 가축시장의 풍경

금촌 가축시장이 파주 우시장의 명맥을 잇기 위한 몸부림은 1990년대 말까지다.

자료를 뒤지다 보니 지난 1996년 8월 26일 금촌 가축시장을 찾은 기록이 남아 있어 소개한다.

1996년 8월 26일 새벽같이 맘먹고 금촌 가축시장을 찾았다.

1·6일 금촌장과 같은 날 열리는 가축시장은 금촌체육공원 옆 파주축협 유통사업부 부지에서 열리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매달 26일이면 특별히 한우 송아지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즉, 파주에서 생산된 한우의 품종을 보존하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 철저히 이력관리된 송아지만 엄선해 경매하는 것이다.

그날 아침 송아지 경매가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시장에는 일반소와 파주 송아지 경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날 경매에 출장(出場)하기로 한 송아지는 8개월 미만의 어린 소로 모두 16두가 예정되어 있었다. 송아지 경매장 옆에는 일반거래 대상 소 30여 마리가 이미 새벽 6시경 출장때 뚝뚝히 묶인 채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소 주인은 모두 세 사람으로 한 사람이 평균 10여 마리의 소를 내왔다고 했다.

그러니 소시장에 소를 팔러 온 사람과 사러 온 사람을 모두 합쳐봐야 겨우 30여 명밖에 안 되는 조촐한 풍경이었다. 서로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하는데 주로 세상사 얘기로 소를 사고파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안 팔리면 되게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 같았다. 일반소 거래장 옆의 송아지 경매장에는 각 칸마다 출장 나올 소의 이력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송아지들의 무게와 어미소의 혈통, 출생년월일 등 송아지 이력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7시경이 넘으면서 송아지 경매에 출장하는 소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 왔다. 우선 화물차에서 송아지를 끌어내리는 일이 힘겨워 보인다. 우시장에 끌려나온 소들의 몸부림은 대단하다.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어린 송아지 힘으로는 오래 버텨내지 못한다. 차에서 내려 우선 계량기를 이용해 몸무게를 달고 각자의 이력카드 앞에 묶여진다. 수의사가 일일이 송아지들의 건강상태를 검진한 후 경매가를 내정하는데 금촌 가축시장에서만 약 20여 년 동안 경매가 내정위원을 지내 온 김기찬씨(60)가 일일이 돌아보며 내정가격을 매긴다.

이날 가장 높은 내정가는 교하읍 교하리의 황동인씨 송아지로 2백37만원의 내정가가 매겨졌다. 낙찰가는 주로 내정가격에서 2~30만원 위로 결정되는데 이날 최고가로 낙찰된 송아지는 2백57만원에 거래되었다. 16마리 중 10마리가 낙찰되었고 4마리는 장외로 거래되었으며 아쉽게도(?) 2마리는 귀가하고 말았다. 탄현면 금산리에서 송아지 1마리를 내온 조창환씨는 요즘 소 기르기가 겁이 난다며 예전에는 4~5백만원 하던 소값이 지금은 절반값도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 8시 반경 금촌 우시장의 경매는 모두 끝났다. 오늘 송아지 경매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편이다. 경매장 옆의 일반소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되신고 가는 신세가 되었다.

우시장을 나오다보니 도로 옆 공지에 일반 가축시장이 자그맣게 펼쳐져 있었다. 대여섯 개의 파라솔 아래로 강아지, 흑염소, 토끼, 고양이, 오리, 병아리 등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우리 안에 갇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1990년대 금촌체육공원옆에 위치한 금촌 우시장 모습

2015년 현재의 모습

파주의 우시장은 1990년대 말을 기해 쇠퇴하고 말았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장을 통해 소를 거래하는 절차가 필요 없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예전처럼 소가 농사에 필요 없게 되면서 소의 유통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옛 우시장의 풍경이 자꾸 그리운 것은 왜일까?

며칠 전 금촌 장날 순달교 옆 경의선 전철 교각 아래에서 서너 명의 장사꾼이 강아지 몇 마리를 놓고 파는 모습이 보였다.

이곳이 현재의 금촌 가축시장의 명맥을 실낱같이 이어가는 곳이다. 강아지 몇 마리를 놓고 파는 곳을 가축시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억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습도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자꾸 자꾸 억지를 부려본다.

이윤환*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 조평기님의 일기 |

장미꽃 피기 시작하여 자꾸 핀다!

1987년 1월 4일. '오늘은 심심하여 흥○○, 정○○, 김○○ 4인이 토끼몰이 갔다. 토끼 한 마리 통기지도 못하고 진달래꽃 필 거 한 움큼 꺾어 왔다. 화병에 넣었다'

하얗게 눈 내린 산촌의 겨울, 봄은 아직 멀었지만 토끼몰이 하다 겨울눈 맺힌 진달래를 꺾던 그 손으로 수십 년간 써내려온 일기장을 읽었다. 적성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오신 80대의 노부 조평기씨(81)의 일기장이다.

화려한 수식어도 관념적인 표현도 보기 힘든 소소한 일상들이다. 특별히 적을 것이 없는 날은 '집에서 쉬었다. 야간에 ○○네 집에 말을 다녀왔다.'로 끝나는 단조로운 일상들도 많았다. 간간히 그림들도 눈에 띈다. 빼뿔빼뿔한 선으로 발을 그리고 김을 맨 곳, 거름을 준 곳이 세세히 표시돼 있다. 가족의 동선과 이웃의 경조사도 모두 기록돼 있다. 한 마을의 이력서이며 충실한 기상청이다.

일기장 속의 기록은 담담했다. 감정이 배제된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었다. 몇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일기를 쓰고 모아올 수 있는 비결일지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그의 삶 자체가 수식할 줄 모르는 진솔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 계절에 맞게 하루를 살고 자연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움직이고, 일상의 끝으로 고단한 몸을 굽혀 삶의 기록을 적는 것. '이젠 눈도 어둡고 손이 떨려 글씨 쓰기가 힘들지. 그래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써내려 갈 생각' 이라고 그는 말한다.

우사에 가서 사료를 주고, 가뭄 든 눈에 물을 대고 들어오다 쓴 일기 말미에 '장미꽃 피기 시작하여 자꾸 핀다.' 라고 썼다. 또 어느 날은 '임진강 율포리 자라목으로 여울물이 넘쳐 물소리를 들으며 펜을 들었다. 이곳 여울에 백로 세 마리가 저녁먹이를 구하러 왔다. 자라목 여울에는 항상 백로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 밤에는 개똥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구름다리와 양수장 강물에 비친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펜을 들었다.' 라고도 썼다. 한 편의 시(詩)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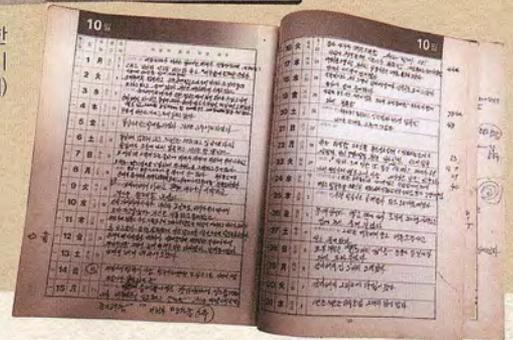
'눈에 나가 못자리 갈고 짚 묶어서 조금 싣고 들어왔다. 부인은 생일에 일하고 들어왔다.' 1987년 3월 29일 일기의 전문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미안하다거나 안쓰럽다는 표현도 없었다.



조평기 어르신 30년 간의 일기장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한
영농일기
(1984년 10월의 일기)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뭐 내세울 것은 못 돼. 초등학교 겨우 나왔고 농사꾼이라 농사에 관한 것만 적어놔서 이게 글 쓸 거리가 되려나 몰라.” 찾아뵙고 싶다는 전화에 대한 그의 답이었건만 일기를 읽는 나는 어느 새 그 일상의 기록 속에 숨은 행간을 더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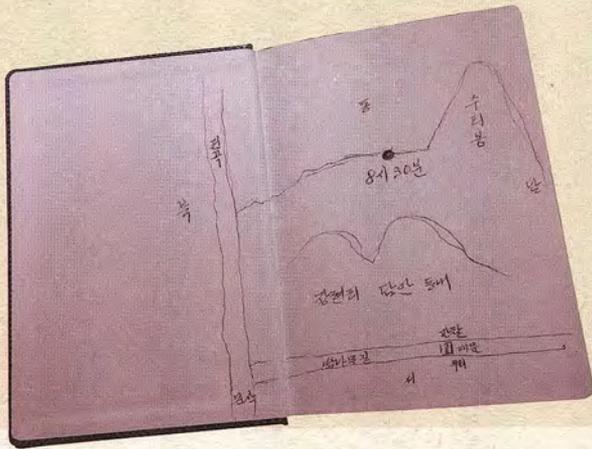
다음은 일기의 주인공 조평기님과 인터뷰 내용이다.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건 언제였나요? 쓰기 시작하신 동기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여 한 살이 되는데 마흔아홉 살 때 처음 쓰기 시작했지. 씨앗가게에서 이웃집 친구가 농사정보가 담긴 책을 한 권 받아왔는데 거기에 작은 칸으로 하루씩 기록을 하는 게 있었어. 그걸, 내게 줘서 가져다 쓰기 시작했지. 그날의 중요한 일을 짧게 메모하듯 쓰기 시작했어. 그다음부터는 내가 한 권씩 사서 썼는데 농사일이며 사계절의 날씨를 다 적어놓으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매일 쓰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불편하거나 귀찮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밥을 먹거나 잠을 자듯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지. 내가 쓴 날을 계산해보니 1만 일이 넘었어. 나 스스로도 어떻게 그 긴 날을 써내려왔을까 뿌듯하기도 하지. 어떤 날은 농사일 하고 들어와 몸이 지치니 손도 굳고 글이 막히는데, 오랜 세월 쓰다 보니 습관이 된 것 같아. 이젠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떨리지만 그래도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쓸 생각이야.



매년 새해 첫날이면 집 대문 앞에서 떠오르는 해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해가 떠오르는 곳이 매년 변한다는 게 어르신의 설명이다.

일기장의 앞면 안쪽 표지에 대문에서 바라다 보이는 앞산과,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의 위치가 서툰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해 뜨는 시간은 작년에도 올해도 8시 30분이다.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태양이지만 1만 날의 삶은 모두가 개별적이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다른 날이다. 그 하루하루의 의미가 앞으로의 일기장 속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갈지 자못 궁금해진다.

여행을 가시거나 자녀분들 댁에 가실 때도 일기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나요? 일기 쓰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언젠가 작은 아버지 기일에 밤을 까다 심하게 복통이 온 적이 있지. 담낭염이라나 병원에 갑자기 실려 간 거라 며칠 동안 일기를 못 썼는데 퇴원하고 나오면서 병원 기록을 받아와 옮겨 적은 적이 있어.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가지고 다니면 짐이 되니 메모를 해 와서 적곤 하지.

지금 뒤돌아보니 일기를 써서 이런 점이 좋았다, 라고 느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나간 일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일기장을 뒤져서 알아볼 수가 있으니 좋지. 내가 꼭 하늘을 보고 다니는데 30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날씨를 적다보니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눈이 올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 그동안의 날씨만 통계를 내보았는데 날씨 변화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이것을 농사짓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야. 지나간 일을 보면 다가올 일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늘 무언가를 쓰시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삶의 가치나 자녀들에게 주는 교육의 지침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섯 아이를 키우면서 한결같이 이야기 한건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거지.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란 것 같아. ”

언제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농약 값은 얼마이고 그런 것이나 적어놓은 한낱 농사꾼의 기록일 뿐이라 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료값이나 인건비, 교통비 등의 변화, 그리고 30년간의 일기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마을길이 변하고 골프장이 들어서고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아 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야 늘 하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거두는 열매의 의미, 그 소중한 과정을 모르고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김순자*

*파주문화유산해설사회 회장

| 월롱 도내리 장춘금님의 짚풀이야기 |

풀 향기 가득한 시간에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사람들은 막연히 귀향을 꿈꾼다. 짚가리 근처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빨기풀 속살을 뜯어 먹던 허기진 시절도 삭막한 삶 속에선 그리움이 되곤 한다. 현실에서의 도피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달콤한 꿈이 지친 삶을 견뎌내는 힘이 될 때도 있다.

맷방석과 명석, 파리, 짚신 등 당시의 생필품들이 이제는 보기 힘든 추억의 물건이 되었다. 희귀 본능일까?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전통의 힘 때문일까? 지금의 생필품과는 조화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유하고픈 그리움 속의 소품들이다.

언젠가 파주문화원의 '짚·풀 문화공예품 공모전'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동그랗고 커다란 대청석이다. 풀줄기를 가늘게 꼬아 만든 정밀한 문양이 정겨우면서도 아름다운, 그대로의 예술품이었다. 작품을 만든 이는 월롱면 도내리에 사는 83세의 짚풀공예 장인(匠人) 장춘금님이다.

넉가래의 흔적도 없이 며칠 전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적막한 시골집에서 그녀를 만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장마철이나 겨울철, 농한기를 틈타 사랑방에 앉아 짚을 엮곤 하셨다.' 한다. 어깨너머로 보아 온 것을 재미 삼아 만든 것이 재떨이 받침이었다.

"논에 갔다 오는데 꼬랑이 있더라고. 낫으로 베어 경운기에 싣고 와 한 번 만들어봤지."

1999년, 파주시 승격 기념행사에 이장의 권유로 처음 출품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나이는 이미 칠순에 접어들었다. 남편은 저세상으로 떠난 지 한참 오래전이고, 네 자녀를 모두 키워 출가시키고 난 후 새롭게 시작된 또 한 번의 인생이다. 그로부터 2년 후, 시 승격 3주년 기념행사에는 받침 몇 개를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



했다.

‘내가 이번에 작은 상이라도 받게 되면 다음번엔 꼭 대상을 타고 말 거야!’

그때의 다짐처럼 2004년 ‘파주 짚·풀 문화공예품 공모전’에서는 풀줄기를 엮은 대청석으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그 후로 십 년, 실로 예술혼이 빛나는 그녀 인생의 황금기이다. 농촌 진흥청에서 대상을, 아산시, 원주시 등 각종 대회에 전국구로 활동하며 우수상, 대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풀향기와 더불어 산 아름다운 노년이다.

“다듬고 새끼 꼬고 작품 하나 만들려면 이십 일씩 걸려요. 집안일을 할 때도 밭에 나가 김 맬 때도 오로지 그 생각뿐이지. 어느 것을 만들까? 늘 연구했어. 2004년도 그때가 동짓달이었는데, 시어머니 제사를 지낸 지 사나흘 지나서였나? 준비는 다 해놨는데 무엇을 만들지 영 떠오르지 않는 거야. 자다가 깨 보니 새벽 다섯 시였어. 그런데 눈앞에 그림이 떠오르는 거야. 얼른 일어나 종이에 그려놓았지. 무엇이든 결심을 하고 간절히 원하면 꿈에서라도 알려 주나봐. 그게 바로 대상을 탄 작품이야.”

세월이 흐르고 여든셋이 된 지금,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짚·풀 공예 부문의 기능 보유자가 되는 것이다. 재료를 채취하던 농로는 타르로 덮여버리고, 짚이며 풀줄기를 함께 엮던 이들도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이제는 몇 안 되는 이들과 마을에 남아 소일거리 삼아 작품을 만든다.

재료를 구하는 것도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아쉽다 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도 안 되는 일을 누가 배우려 들겠어?”

손재주를 물려받은 둘째 딸조차 여건이 안 돼 물려줄 수 없다고 한다. 간간히 기침을 하며 ‘이제는 숨이 차 걸음 걷기도 힘들다.’ 면서 가는 줄로 꼬아 만든 작은 받침을 꺼내놓는다. 촌촌한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다.

오래되고 형태(形態)를 잃어가는 나무대문을 나서며, 거칠지만 야무진 손으로 풀에 기억을 담고 따듯함을 입히는 할머니의 숨씨를 오래지 않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멍멍하다.



그 옛날, 장난기 많은 이들은 논둑길 사이를 지나다 까랑의 매듭을 엮어 누군가를 넘어 뜨렸다. 채이고 밟히던 한낱 들풀이었다. 이름도 모른 채, 무심코 지나치던 키 작은 풀줄기가 그녀의 손끝에서 작품이 되어 살아났다.

짚신 두트레방석 둥구미 오쟁이... 이름조차 낯선 시대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넉넉한 웃음과 어머니의 그리운 숨결, 그리고 어린 시절 나의 촌스럽던 모습까지 배어 있는 짚풀 공예품들은 그리움으로 향하는 시간의 창(窓)이다.

짚풀공방(工房)이나 마을강좌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숨씨를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작업이 흥겨운 창작의 시간이 되기를, 가슴에 담은 소중한 기억들을 담아내는 짚풀의 이야기들을 나와 아이들, 그 너머까지 멀리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순자

장춘금님 짚 · 풀 공예품 공모대회 수상 내역

1999.3.2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장려상	2006.6.21 제5회 짚풀공예품공모전 원주시, 원주시립박물관 금상	2009.6.19 제8회 짚풀공예품공모전 원주시, 원주시립박물관 은상
2000.3.2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동상	2006.11.1 제2회 짚풀공예품 공모전 농촌진흥청 최우수상	2010.3.3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은상
2001.3.2 파주시승격5주년 기념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동상	2006.11.30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기념 전국짚풀공모전 아산시 대상	2010.6.24 제9회 짚풀공예품공모전 원주시, 원주역사박물관 은상
2003.3.3 파주시승격7주년 기념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은상	2007.3.3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동상	2011.2.22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은상
2004.3.2 파주시승격8주년 기념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대상	2007.6.21 제6회 짚풀공예품공모전 원주시, 원주시립박물관 대상	2011.6.28 제10회 짚풀공예품공모전 원주시, 원주역사박물관 금상
2005.2.19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동상	2007.11.7 제3회 짚풀공예품 공모전 농촌진흥청 우수상	2012.3.2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장려상
2005.11.2 제1회 짚풀공예품 공모전 농촌진흥청 최우수상	2008.2.17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장려상	2012.6.19 제11회 짚풀공예품공모전 원주시, 원주역사박물관 은상
2006.2.12 파주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파주시, 파주문화원 동상	2008.6.20 제7회 짚풀공예품공모전 원주시, 원주시립박물관 은상	

파주

고지도 4選

가을별이 화창한 10월, 을곡선생유적지 잔디 마당에 파주 고지도(古地圖) 50여 점(點)이 선을 보였다. ‘파주 고지도전(展)’, 고색창연(古色蒼然)한 역사유물(遺物)은 아니었지만 파주의 옛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전시(展示)였다. 많은 종류의 지도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해동지도(海東地圖)』이다. 채색된 부분이 보기에 좋아서이기도 하고, 파주를 구성하고 있던 옛 지역 즉, 파주목(坡州牧), 교하군(交河郡), 적성현(積城縣), 장단부(長端府)로 나뉘어진 점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또 지도에 부기(附記)된 고지명이나 당시의 면면을 알려주는 기록들이 보는 이의 흥미(興味)를 당긴다.

32967



『해동지도』는 보물 제1591호이다. 6책 128장 2축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 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다. 1750년대 초반에 제작된 관찬(官撰) 지도집으로, 채색필사본이다. 조선전도와 도별도, 군현지도뿐만 아니라 세계지도인 「천하도(天下圖)」·「중국도」·「황성도」·「북경궁궐도」·「왜국지도」·「유구지도」 등의 외국지도, 그리고 「요계관방도」와 같은 군사지도 등이 망라되어 수록되어 있다.

『해동지도』는 국가 차원에서 제작된 방대한 분량의 지도책으로, 당시까지 제작된 모든 회화식 지도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 여백 주기의 내용이 매우 충실하여, 지도에 지리지를 결합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5910000,11

파주목

파주는 坡平縣과 瑞原縣을 합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문산읍, 월롱면, 조리면, 법원읍, 파주읍, 파평면 일대에 해당하며 그 중심지는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이다. 임진강의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臨津渡를 비롯한 나루터가 발달하였고 임진강을 따라 花石亭(파평면 울곡리) 등 亭子들이 연이어 있음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치 안의 건물들을 상세히 그렸으며 다른 경기도 군현지도에 잘 나타나지 않는 軍器(庫)가 이 지도에는 등장하고 있다. 지도에 나타난 坡山書院(파평면 놀로리)은 1568년(선조 원년)에 세워져 1650년(효종 원년)에 사액된 것으로 聽松 成守琛과 그의 아들 牛溪 成渾 등을 배향하였다. 파주읍 향양리에 성혼의 墓가 있는데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紫雲書院(법원읍 동문리)은 1615년(광해군 7)에 창건하여 栗谷 李珣를 배향하였으며 주위에 이율곡 묘와 신사임당 묘가 있다. 長陵(이 지도에서는 문산읍 윤천리에 해당하며 현재는 탄현면 갈현리로 이장된 상태)은 조선 인조와 인열왕후 청주 한씨의 능이며 恭陵(조리면 장곡리)은 조선 예종의 계비 장순왕후의 능이며 順陵(조리면 봉일천리)은 성종의 비 공혜왕후 한씨의 능이다. 이 밖에 恭肅公墓, 孝章墓 등이 있다.(이현군)

주요 지명과 유적

감악(甘岳), 개좌비현(介佐非峴), 공릉(恭陵), 공숙공묘(恭肅公墓), 광탄천(廣灘川), 구산(龜山), 군기(軍器), 근암산(斤岩山), 금강사(金剛寺), 남계영당(南溪影堂), 내소정(來蘇亭), 당산(棠山), 대산봉수(大山烽燧), 마산주막(馬山酒幕), 망해암(望海庵), 미이사(彌池寺), 반구정(伴鷗亭), 봉일천(奉日川), 사곡제언(社谷堤堰), 사단(社壇), 산원수(山源水), 성곽산성(城廓山城), 성우계묘(成牛溪墓), 소고리현(所古里峴), 소로(小路), 순릉(順陵), 신원하류(新院下流), 아사(衙舍), 연풍천(延豐川), 영월정(永月亭), 영평산(永平山), 영풍도(迎豐島), 웅산(雄山), 월롱산(月籠山), 임진강(臨津江), 자산(雌山), 자운서원(紫雲書院), 자웅원수(雌雄源水), 장릉(長陵), 장암(場岩), 저포험진(猪浦險津), 전석(磚石), 중로(中路), 차유령(車踰嶺), 창사(倉舍), 축방(築防), 축전리(豕轉里), 취적(取適), 칠송정(七松亭), 파산서원(坡山書院), 포구(浦口), 풍계사우(豐溪祠宇), 한미산(漢尾山), 해유령(蟹踰嶺), 해유령원수(蟹踰嶺源水), 향교(鄉校), 혜음령(惠陰嶺), 화석정(花石亭), 효장묘(孝章墓)

교하군

신라 경덕왕이 交河로 이름을 고쳤으며 경기도 파주시내, 파주시 교하면, 탄현면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1914년에 파주에 합하여졌다. 중심지는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파주시 금릉동일대이다. 교하현은 원래 탄현면 갈현리에 있었는데 1733년(영조 9)에 長陵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交河縣을 금촌읍 금릉리(현재의 파주시 금릉동)으로 옮겼다가 7년 후 다시 교하면 교하리로 옮기게 된다. 지도 왼쪽의 여러 강들이 모이는 지점은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가장 위쪽의 강이 임진강이고, 가운데는 恭陵川(공릉천), 아래쪽은 한강이다. 임진강 하류에 河中島인 一眉島가 있었던 것이 흥미롭다. 읍치 내부 건물들의 그림은 그리지 않고 건물 이름만 표시한 점이 독특한데 客舍와 司倉 사이에 官坐地라 적고 있다. 新谷書院은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것으로 1683년(숙종 9)에 세워져 尹宣擧 등을 배향하였다. 邑治 뒤쪽의 烽燧는 黔丹山烽燧이다. 주변의 산은 읍치를 향하게 그리고 있으며 山所가 있는 곳은 산줄기를 하나의 독자적 形局이 되게 그렸다.(이현군)

주요 지명과 유적

객사(客舍), 검단산(黔丹山), 고산천대로(高山川大路), 공릉천하류(恭陵川下流), 관좌지(官坐地), 금척포진(金尺浦津), 낙하진로(洛河津路), 미동면(尾洞面), 봉대(峰臺), 사단(社壇), 사창(司倉), 석곶면(石串面), 설매현로(雪邁峴路), 신곡서원(新谷書院), 신오리면(新五里面), 심악산(深岳山), 아동면(衙洞面), 오두산성(鰲頭山城), 왜진현(倭陳峴), 월룡산(月籠山), 윤본방산소(尹本房山所), 일미도(一眉島), 임진하류(臨津下流), 장곶진(長串津), 장명산(長命山), 장원서울원(掌苑署栗園), 전포진(前浦津), 주봉산(主峯山), 지석면(支石面), 청암면(靑岩面), 탄포면(炭浦面), 태봉(胎峯), 한강하류(漢江下流), 한록산(漢麓山), 해암(蟹岩), 향교(鄉校), 현내면(縣內面), 형제봉(兄弟峯), 후율포진(朽栗浦津)

交河郡

石名宣城 泉井口屈火魚
 南至同郡界三十二里
 西至豐德界九里
 北至長滿界五里

九戶二千三百九十二戶內 男三千六百零二口 女五千三百三十口

宗田四百二十八結二十四頁二束

宗番六百五十六頁二束

還穀揔敷

米一千一百八十八石

石樣雜穀三千五十八石

軍兵揔敷

訓局及禁御各色軍保并二百六十名

守禦軍需保一百六十三名

掘戎廳屬將校軍保并八百八十四名

兵曹屬各色軍保并三十九名

尚衣院匠人保并三十五名

監管旗手保三十九名

烽燧別將及軍保并一百二十二名

水營水軍保并六十一名

谷面瓦洞面 十五里 青岩面 二十里 石串面 二十里

衙洞面 二十里 縣內面 十五里 炭浦面 二十里 新

五里面 二十里

本高勾麗泉井口縣 一云屈新羅景德王

以今名為郡高麗顯宗屬揚州本朝

太祖以漢陽屬縣深縣官平屬鄉石浸米

屬太宗以石浸屬原平府深岳屬高陽縣

及俱還屬例改縣監



山川黔丹山 在縣西 深岳山 在縣南 瓦洞山 在縣東南 烏集城山 在縣西 炭浦山 在縣西南 藥山 在縣西 一眉山 在縣南 金尺津 在縣東源出揚州道 深岳津 在縣南 洛河渡 在縣西 長串津 在縣南 采浦池 在縣東 落花津 在縣南 津 津社一頁

古跡深岳殿 在縣南古安蘇鄉高麗顯宗時改名為縣屬

石浸鄉 在縣東 烏集城山 在縣東

駱院冷井院 在縣東 洛河院 在縣東

烽燧黔丹山 在縣西 應高陽郡高岩城山 在縣西

佛宇黔丹寺 在縣西

土產葦魚 秀魚 鯽魚 蟹

陵 陵一

長陵

적성현

고려 초에 적성현이 되었으며 1914년 경기도 연천군에 흡수되었다가 1945년에 대부분의 지역이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현재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과 연천군 백학면, 장남면 일부, 양주군 남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중심지는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가 된다. 감악산 북쪽과 임진강 유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지도의 아래쪽에 있는 頭只江은 임진강이다. 頭只江(임진강)에서 갈라진 三伊川은 연천군 백학면과 장남면의 경계가 되는 사미천(삼미천, 새미내)이다. 新津江(神智개, 新津浦)은 감악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임진강과 합류되는데 신지개는 적성면 구읍리의 북동쪽에 해당한다. 임진강이 아래에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縣의 북쪽에 위치한다. 감악산이 있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 된다. 임진강가에 있어 농사에 적합한 지역이라 坪이라고 기록된 곳이 보인다. 읍치 안의 건물들을 자세히 그렸으며 紺岳山祭壇을 비롯하여 城隍壇, 祭壇, 社稷(壇) 등의 제단을 그림과 함께 표시하고 있다. 紺岳山은 서울의 三角山(북한산)을 뒷받침하여 서울의 땅기운을 북돋아준다 하여 신성시되는 산으로 지금도 많은 곳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도에서의 산줄기는 脈을 강하게 표현하여 그렸으며 풍수 관념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가 지나가는 고개(峴)가 자세히 나와 있으며 湘水驛, 丹棗驛 등의 驛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그 밖에 芳寺, 鳳岩寺 등의 사찰이 나와 있다.(이현군)

주요 지명과 유적

간고현(澗瓜峴), 감악산제단(紺岳山祭壇), 광석현(廣石峴), 군방사(群芳寺), 대곡당현(大曲堂峴), 대야평(大野坪), 두지강(頭只江), 두지평(頭只坪), 봉암사(鳳岩寺), 부연진(窩湍津), 북면대야평(北面大野坪), 사직(社稷), 사창(司倉), 삼이천(三伊川), 상수역(湘水驛), 설마치(雪馬峙), 성현(城峴), 성황발고제단(城隍發告祭壇), 신진강(新津江), 아사(衙舍), 아현(阿峴), 여제단(厲祭壇), 연무청(鍊武廳), 우상현(牛象峴), 이천(伊川), 자작현(自作峴), 전패봉안(殿牌奉安), 향교(鄉校), 향청(鄉廳), 현내두지평(縣內頭只坪)

장단부

신라 경덕왕이 장단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현재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과 연천군 장남면, 북한의 장단군 진서면, 장도면, 대강면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가 그 중심지가 된다. 장단면, 진동면은 임진현에 속하였다가 1457년(세조 3)에 장단에 편입되었고 진서면은 1418년(태종 18)에 송림현에서 임강현으로 되었다가 1458년(세조 4)에 장단에 편입되었다. 지도에 나타난 板積橋 바로 가까이에 현재 판문점이 있다. 휴전선 이남과 이북에 걸쳐 있으며 임진강 북쪽에 해당한다. 이 지도에서는 종이에 맞추기 위하여 임진강의 流路를 왜곡하여 그렸다. 지도의 오른쪽의 三味(大)川은 임진강의 한 지류로 지금 사미천이라 불리는 것이다. 임진강가에 古浪浦, 楮浦 등의 포구가 발달하였으며 정자(退北亭)가 있었다. 임진강변에는 司僕倉, 北倉, 亭子浦倉 등의 창고가 있었다.

臨江書院은 1680년(숙종 6)에 세워졌으며 1694년(숙종 20)에 사액되었다. 이 지역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능(장남면 고랑포리)을 비롯하여 고려 肅宗陵, 고려 明宗陵 등의 왕릉과 무덤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이 지도에 나타난다. 華藏寺는 서역에서 元나라를 거쳐 고려에 들어온 指空이 세운 절이다. 長湍의 도로는 북으로는 개성과 연결되며 남으로는 임진강을 건너 파주, 고양을 거쳐 서울로 연결되었다.(이현군)

주요 지명과 유적

가물현(加勿峴), 가차현(加次峴), 갈마동(渴馬洞), 감박산(甘朴山), 강동면(江東面), 강북면(江北面), 강서면(江西面), 강연(江連), 경릉(景陵), 고기(古基), 고남면(古南面), 고도산(古都山), 고랑포(古浪浦), 고모곡(古毛谷), 고송림현(古松林縣), 고암산(高岩山), 고읍(古邑), 골릉(滑陵), 곽진(串殘), 관송리(貫松里), 구봉촌(九峯村), 구절릉(九節陵), 구화역(九火驛), 군장산(軍藏山), 굴곡(堀谷), 금곡(金谷), 금릉(金陵), 금모재산(金慕齋山), 금산(金山), 금상산(金相山), 금약(金約), 금약곡(金約谷), 기곡(基谷), 나릉(蘿陵), 냉정(冷井), 대덕산(大德山), 대야현(大也峴), 대위면(大位面), 덕진단(德津壇), 도라산(道羅山), 도사암(道士庵), 도차동(刀次洞), 독남촌(獨

長湍府

距京一百四十七里
 郡名隕川 長湍城 耶 夜新 滿川 長臨 臨滿
 東至朔寧界五十里 西至豐德界二十六里
 南至坡州界四十五里 北至黃海道界十三里
 至麻田界三十六里 至積城界五十一里
 至同城府界三十七里

各面津東面 津縣
 內面上道面 下
 道面 中 西面 下
 津北面 十五松南
 面野松 西面 三十
 西道面 野東道面 野
 長北面 野江南面 野
 西面 野江北面 野江東面
 九十里 大位面 野長東面
 五十里 長縣內面 野古南面
 野長西面 野
 九戶五千九百零五局
 男 萬一千一百六十
 女 七千九百八十三
 九畝番 並五千六百十
 八結 十七九東 內 附
 宗田番 三千二結 季 西 東
 還 穀 摠 數
 田米 一百七十七石
 大 米 八百三十三石
 各 樣 雜 穀 一 萬 二 千 四 百 六 十 石
 軍 兵 摠 數



兵曹 向 各色 軍 保 並 四 百 四 十 三 名
 水 軍 二 百 六 十 一 名
 兵 並 二 十 二 名
 京 各 司 屬 各 色 軍 保 並 一 百 七 十 六 名
 烽 燧 監 官 及 軍 保 並 二 百 二 十 二 名

驛院 純源驛 在府南九尺 屬驛五批 和 東坡驛 在府南十五里
 仇和驛 在府東 白岑驛 在府東 通濟院 在府南 冷井
 院 在府南 吾目院 在府南 藥師院 在府西 蓮花院 在府東 右
 桂院 在府東 淑川院 在府西 禪具院 在府西 天壽院 在府西
 蜂燧 天壽山 蜂燧 院 出 峯
 在松林西南 應都 羅山 西 應
 同城府 松岳山 國師堂
 土產 絲 麻 松 茸 茸 魚
 訥魚 錦鱗魚 銀
 只魚 秀魚 蟹 魚
 菖蒲 綠 蓉 出 府 東
 獨子 洞
 佛宇 華藏寺 在 寶 鳳 山 初 為
 佛 祖 著 指 空 始 創 靈 通
 佛 寺 有 指 空 持 來 聖 靈 通
 貝 葉 經 至 今 相 傳
 寺 在 五 冠 山 勝 樂 為 松 都
 第 一 又 有 高 麗 文 宣 真 聖
 燈 菴 麗 太 祖 洛 山 寺 在 漢
 燈 菴 始 創 餘 不 盡 錄
 下 義 相
 陵 墓 高 麗 肅 宗 陵 在 和 林 縣
 佛 項 廟
 英 陵
 高 麗 明 宗 陵 在 府 南
 新 羅 敬 順 王 陵 在 府 南
 防 討 捕 盜 中 營 各 色 軍 官 九 十
 五 名
 各 色 軍 保 並 二
 萬 一 千 四 百 名
 守 禦 廳 各 色 軍 保 並 一 百 二 十 六 名
 監 營 旗 手 戶 保 並 一 名

남촌(南村), 독자동(獨子洞), 동도면(東道面), 동자원(童子院), 동파역촌(東坡驛村), 두매동(杜梅洞), 두봉황(頭鳳凰), 두용산(斗用山), 두현(頭峴), 둔전동(屯田洞), 마골산(馬骨山), 망해산(望海山), 망현봉(望峴峰), 매현리(梅峴里), 모지릉(牟智陵), 반룡산(盤龍山), 발소(撥所), 방정리(方井里), 백연촌(白蓮村), 보봉산(寶鳳山), 봉수현(烽燧峴), 봉현(烽峴), 북창(北倉), 분지천(分地川), 비래동(飛來洞), 사복창(司僕倉), 사현(莎峴), 산점리(山占里), 산정(山井), 삼미대천(三味大川), 삼미천(三味川), 상도면(上道面), 상주현(上棲峴), 상촌(上村), 서곡(瑞谷), 서도면(西道面), 서상산(徐相山), 석기(石岐), 선적촌(善積村), 성산(城山), 송도(松都), 송산(松山), 송서면(松西面), 신촌(新村), 어룡포(魚龍浦), 역촌(驛村), 오관산(五冠山), 오목리(梧木里), 오음리(五音里), 왕릉(王陵), 용둔리(龍屯里), 용산(龍山), 용호산(龍虎山), 우근리(禹勤里), 우려촌(隅閭村), 원당리(元堂里), 원산(元山), 월봉산(月峯山), 월징산(月澄山), 유현(柳峴), 임강고읍(臨江古邑), 임강서원(臨江書院), 임진별장소(臨津別將所), 임진선창(臨津船倉), 장단부(長湍府), 장동면(長東面), 장북면(長北面), 장서리(長西里), 장좌지(長佐地), 장현내면(長縣內面), 저포(楮浦), 적성(積城), 전재궁(田齋宮), 전초촌(前哨村), 점희릉(占希陵), 정자포창(亭子浦倉), 조로산(鳥老山), 좌초(左哨), 지릉(智陵), 지부리(地阜里), 진동면하포(津東面下浦), 진북면(津北面), 진현내(津縣內), 천마산(天麻山), 초리(哨里), 초리상패(哨里上牌), 초현참파소(招賢站擺所), 최시랑산(崔侍郎山), 춘양궁(春陽宮), 취적교(吹笛橋), 태봉(胎峰), 태성(台城), 태장리(胎藏里), 퇴북정(退北亭), 파평산(坡平山), 판부리대촌(板浮里大村), 판적교(板積橋), 풍덕(豐德), 풍덕산(德積山), 하도면(下道面), 하방목리(下方木里), 하주현(下棲峴), 한사(寒寺), 허산(許山), 허산(許山), 화곡(花谷), 화장사(華藏寺)

*본문 지도와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문화트렌드 2014

문화체육 자원봉사시스템(CSV)과 지방문화원

경기도메모리와 지방문화원

페스티벌 31



문화체육 자원봉사시스템 (CSV)과 지방문화원



문화체육자원봉사(csv.culture.go.k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문화·체육 확산과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봉사자와 활동처 간의 온라인 매칭지원 시스템이다.

문화체육자원봉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문화원을 포함한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 및 단체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동호회·전문가들은 봉사자로서 자신에게 맞게 맞는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문화 창달’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의 각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방문화원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 ‘시·군·구 지원센터’로서, 문화자원봉사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원의 활동영역 재고(再考)와 조정은 물론 지역 문화활동의 중심 기구로서 새로운 출발점위에 서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사물놀이 강습

문화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는 문화적 소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문화 공간 및 문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개인에게는 문화감수성을 증진시켜 삶의 기획력을 높여주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창의성과 활력을 제공하여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자원봉사의 출범은 자원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에도 변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담으며, 삶의 기획력이 살아 있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며, 문화자원봉사 활동은 그러한 현대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문화자원봉사의 핵심인 ‘문화감수성’은 현대사회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상의 문제인 ‘삶의 질’ 향상의 내적 동력이자,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생존 도구인 소통능력을 높여주며, 공동체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문화자원봉사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원봉사와 동일하지만, 일반자원봉사가 사회적 공공성을 높이는 시민성의 함양을 강조하는 반면,

문화자원봉사는 문화감수성의 공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기존 문화시설 안내서비스 중심의 문화자원봉사 활동이 동호회(클럽), 마을 공동체 등 주민참여 활동과 복지시설 등 다양한 일반시설로 확대되고 있고, 문화자원봉사자들이 활동처를 찾거나 수요처가 봉사자 또는 재능기부자를 모집하는데 기존 자원봉사 시스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화자원봉사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안행부의 ‘1365자원봉사포털’이나 복지부의 ‘VMS’, 여가부의 ‘DOVOL’에서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자원봉사 관련 분야가 비전문적 단시간 봉사가 많아 다양한 색깔과 기능을 가진 문화봉사자들의 특질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각 문화시설 관리자들과의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내 서비스 중심의 일감 개발과 공급자 중심의 모집 관리,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온 것이다.

문화자원봉사의 현장과 활동영역

문화자원봉사자는 문화시설 및 기관, 축제, 지역공동체 등에서 교육·체험, 공연·전시, 기획·제작, 운영, 홍보·기록, 시민 서비스 등 개인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 문화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직업적으로 공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하거나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연봉사를 하는 것뿐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문화예술 현장에서 안내, 해설 등의 문화매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문화자원봉사의 범주에 속한다.

문화자원봉사는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공연장,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모든 공간이 활동 현장이 된다. 특히,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은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결합이 매우 높은 문화자원봉사 활동 공간이다. 즉, 자원봉사가 이뤄지는 곳이 일상의 터전이며, 문화자원봉사는 개인과 사회가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사회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축제 행사 진행

활동처별 유형

도서관 국공립 · 등록사립 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박물관 국공립 · 등록사립 · 대학 박물관 등

미술관 국공립 · 등록사립 · 대학 미술관, 갤러리 등

공연장 국공립공연장, 지역 공공문화회관 · 구민회관, 기타 공연장 등

문화유산시설 궁, 능, 유적지 등

자료관 예술 · 문학 · 향토 등 자료관, 사료관, 기념관 등

전시 · 체험관 과학 · 유적 · 생태 등 전시관 및 체험관 등

생활문화시설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여가 · 레저 · 수련시설 휴양림, 공원, 동물원 등

축제 · 행사 조직 축제 · 행사 조직위원회, 마을축제 사무국 등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 공공기관 및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등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마을회관, 마을예술창작소 등 마을커뮤니티 시설

사회복지 · 의료시설 · 단체 복지관, 노인 · 장애인 · 아동 · 다문화 시설, 요양원 · 의료시설 등

교육시설 및 단체 지역아동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타 기타 시설 및 단체

분야별 유형

인문정신 문학, 역사, 철학, 민속문화, 문화다양성, 책 프로그램 등

시각예술 미술, 영상(미디어아트 포함), 디자인, 건축, 공공미술, 공예 등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 국악, 전통무용, 전통공예, 창극, 연희, 마당극, 탈춤, 사물놀이 등

문화유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생활문화 아마추어 합창 · 악기연주 · 밴드, 전래놀이, 풍물, 난타, 꽃꽂이 등

축제 · 행사 예술분야 · 시설별 축제, 지역축제 · 행사, 마을공동체 축제 · 행사 등

문화산업 만화 ·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상품,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여가 · 레저 관광, 여가, 휴양 등

생태 · 과학 숲, 식물, 동물, 곤충, 우주(지구)과학, 물리학, 화학 등

기타 기타분야

기능별 유형

- 공연 · 전시 문화예술 공연 · 전시 · 시연 등
- 강연 · 강습 · 교육 강연회, 토크콘서트, 교육, 체험, 캠프 등
- 창작 · 제작 문화예술 창작 및 제작 등
- 기획 · 연출 공연 · 전시 기획 및 연출, 축제 · 행사 기획 및 연출
- 사무관리 · 행정 문서작성, 행정지원, 기타 사무업무 등
- 홍보 홍보기획, 홍보물 제작 · 배포, 온라인홍보, 현장홍보이벤트 등
- 진행 및 운영 봉사자 관리, 체험부스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 시설유지 · 관리 음향 · 조명지원, 물품관리 및 정리, 시설관리, 청소, 정리 등
- 해설 문화예술작품, 문화재, 숲, 생태, 과학, 공간, 투어 등
- 안내 · 편의서비스 시설안내, 축제 · 행사안내, 수화, 질서, 안내데스크, 주차관리 등
- 통역 · 번역 외국인 통역, 외국서적 및 관련자료 번역 등
- 자료정리 · 기록 행사기록, 행사촬영, 생활아카이빙, 문화예술아카이빙 등
- 조사 · 연구 조사 및 연구, 자료개발, 설문조사, 인터뷰, 기사스크랩 등
- 멘토링 · 컨설팅 동호회 멘토링 및 컨설팅, 자원봉사 멘토링 및 컨설팅 등
- 인솔 및 돌봄 장애인 · 노인 인솔활동, 놀이방운영, 사회취약계층 프로그램 등
- 기타 기타

문화자원봉사 참여와 활용

문화체육자원봉사 홈페이지(csv.culture.go.kr)를 통해서 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활동에 대한 이력관리 및 봉사 활동 확인도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봉사자의 주 활동지역과 관심분야에 대한 맞춤형 매칭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체육 자원봉사 활동영역의 공간별, 분야별, 기능별 활동 분류에 따른 체계적 · 전문적 활동정보를 제공한다.

또, 봉사자의 활동시간을 일정 절차를 통해 인증하고, 인증된 활동시간은 일자별, 활동영역별로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봉

사자가 전문성을 쌓고 싶은 분야의 활동내역을 관리하고 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룹 봉사활동을 지원해 동아리 · 봉사단 등 문화동호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또한 문화체육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담겨 있다. 문화체육자원봉사의 A~Z를 알 수 있는 활동매뉴얼, 문화체육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와 학습, 정책자료가 있는 자료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봉자C 리포트’ 등을 담고 있다.

문화자원봉사와 지방문화원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내에서 지방문화원은 시군구 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자원봉사 거점 역할을 맡아, 활동처이면서 지원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일감등록, 봉사자 선정, 실적등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자원봉사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이자 생활문화 활성화의 결과이며, 성숙된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의 문화적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기회이자 문화적 공동체 학습의 과정이므로 '공공 문화시설은 물론 문화봉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에서 다양하

게 개발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그간 지역에서 펼쳐온 문화활동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문화자원봉사의 주체이자 관리자로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과 생활문화동아리, 그리고 재능기부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자 허브로서 문화원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직체계와 역할

구분		문화예술 분야	생활체육 분야
총괄 운영본부		문화예술위원회(전체 시스템 운영관리)	
		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분야 총괄 관리)	국민생활체육회(체육분야 총괄 관리)
시도 지원본부		시도 문화원연합회(16개) * 지원센터 및 실적 관리 총괄	시도 생활체육회(16개) * 지원센터 및 실적 관리 총괄
시군구 지원센터		지방문화원(229개) * 활동터전 등록	시군구 생활체육회(229개) * 활동 터전 등록
활동처	인증 활동처	<활동 시간 자체 인증 가능 활동처> 전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 일반단체, 축제조직위, 기타 시설·단체 등 *실적승인 및 소속 동호회 등 관리	
	일반 활동처	<활동 시간 자체 인증이 곤란한 활동처> (활동사항 기록→시군구 지원센터가 시간 인증 승인)	
그룹회원 (2인 이상)		시군구 지원센터 및 소속 인증활동처를 통해 일감등록(수요처 역할)과 재능봉사, 자원봉사 신청 등(봉사자 역할) 동시 수행	
		동호회, 지역 공동체, 2인 이상 모임 등 * 소속 인증터전 또는 시군구 지원센터 (소속이 없는 경우)가 등록, 실적 인증	종목별 생활체육클럽 등 *소속 인증터전 또는 시군구 지원센터 (소속이 없는 경우)가 등록, 실적 인증
*재능봉사자		개인 회원 가입 시, 재능봉사자 참여 희망자가 전문 이력사항 기재 공개	
		문화예술 재능봉사자 DB(이력 공개)	체육분야 재능봉사자 DB(이력 공개)
*우수지역 봉사단		* 우수 지역 문화봉사단(지원센터가 추천 →시도지원본부가 지정, 목록 관리)	* 우수 지역 체육봉사단(지원센터가 추천 →시도지원본부가 지정, 목록 관리)

* 본 자료는 문화체육자원봉사 홍보자료를 재편집한 것이다.

경기도메모리와 지방문화원

경기도메모리

경기도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열린 접근과 공유를 취지로 경기도와 사이버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경기도메모리(Gyeonggi-do Memory)는 도내 문화자원 아카이빙 사업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경기도의 역사 및 기록문화유산에 대해 다양한 광범위한 공용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온라인 아카이브시스템으로, 경기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식과 창의성을 위한 보편적인 컬렉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카이빙 대상자료로 단행본, 보고서, 원고, 지도, 만화, 포스터, 기록사진, 시청각 자료, 음악, 역사 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기관 등 외부 기관들의 장서뿐만 아니라 개인기록물까지 포함하여 경기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연대기적인 사건들(event), 사람, 장소, 사상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
자리매김을
위한 협업의
모색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아카이빙은 이미 선택이 아닌 당위의 과제로 관련 기관의 숙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아카이빙이 가지는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못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지난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문화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카이빙은 용어만 변화했을 뿐 이미 지방문화원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곧 지역문화 자원에 대한 아카이빙이었고 또한 새로운 문화자원의 성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도 많은 지방문화원에는 각 지역의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도서 사진 유품 등 각종의 귀중한 자료들이 정리안된 창고처럼 보관되어 있다고 본다. 또 지방문화원이 활동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어느 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들도 실질적으로 문화원의 활동영역에 속해있는 아카이브 자료들이 될 것이다.

지방문화원이 다양한 형태의 역사문화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날로그적 아카이빙을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간, 확보자료에 대한 분석과 분류를 위한 전문성, 자료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활용과 운영인력 증원을 위한 사업예산의 확보



가 지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지방문화원은 지역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한 아카이빙 작업을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각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발간 책자중심의)를 사이버 도서관에 제공하고 제공된 자료를 디지털화(스캐닝)해 보관하고, 해당 문화원에는 CD로 자료를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다. 사이버 도서관이 사업을 이끌고 문화원이 지원하는 형태의 이 사업에 각 지방문화원들이 '일방적인 자료의 제공체'라는 이상의 의미를 두기 어려웠고, 제공된 자료의 활용이라는 부분도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비자발적인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기도메모리 사업이 기존의 사업형태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재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많은 아카이빙 사업들의 '하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아카이빙 사업은 관리의 주체와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향토문화 전자대전」이나 「기록사랑 마을」 사업 등은 대표적인 아카이브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성공적인지 여부에는 반론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선부른 판단은 위험하지만 사업의 중심에 지역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사업 진행 시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당연히 함께 했겠지만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부분 또는 활용하는 부분에서 지역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았기에 진행형으로서의 아카이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토문화전자대전의 경우 지역별 전자대전 구축 이후 해당 사이트 관리를 해당 지역에서 하지 못하고 사업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역사와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기록사랑 마을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마을단위 지역민들의 협조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사후 관리에 소홀해 당초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 자

체가 일회적이거나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돼 자료 확보 후 활용주체를 선정하거나 사후관리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메모리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도서관과 문화원이 가진 장점이 아카이빙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도서관은 수많은 자료들을 분류하고 보관하며, 안정적 기반(시설 및 인력, 예산) 속에서 도민들과 만남의 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문화원이 가지지 못한 것이다. 반면 문화원은 향토사 연구소 등을 활용한 현장에서의 자료의 수집,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화활동을 통한 자료의 생성, 그리고 아날로그 자료의 수집과 전시를 통한 자료의 활용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두 기관의 강점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도서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자료의 분류와 보관, 배치에 대한 전문성을 지방문화원에 이식하여야 한다. 개별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기 지역의 역사문화 자료와 전국적인 역사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나 관련 전문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도서관에서 수집할 데이터의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는데도 능률적인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통해 디지털화 된 자료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정보사용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원본 소스는 문화원에서 수집하고 도서관은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스캐닝을 넘어선)화하고 이를 보관하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원본을 다운사이징한 섬네일 형태나 또는

다운로드가 차단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료의 저작권적 문제발생의 소지를 해소하고, 자료의 수집 또는 생성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이 사업이 단지 도서관의 데이터를 확장하기 위해서만 기능한다면 '경기도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열린 접근과 공유' 라는 원대한 목표의 포장에만 치우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문화자원의 수집과 활용이라는 근본적인 내용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수집된 원본자료의 보관과 활용을 위해 각 지방문화원이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경기도메모리 사업 내에서 지원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메모리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실천적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제도의 활용도 검토해볼만하다. 각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들을 기본으로 하고, 아카이빙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활용하는 지역적 근거로 지방문화원 내에 지역사 전문 도서관의 성격을 가진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는 것이다. 작은 도서관 지정을 통해 문화원 내에 도서관이 지니는 전문성을 유치함으로써 아카이빙의 대상이 되는 각종 자료의 체계적 분류와 활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지방문화원의 상황에 따라 공간 확보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체인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 ‘작은 도서관’ 지정은 관련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긍정적 활용방안이 될 ‘라키비움(도서관(library)과 자료실(archive), 박물관(museum) 기능이 통합된 문화컨텐츠 공간)’의 사전단계로 신속한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메모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빙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경기도도서관과 지방문화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역사학자나 문헌정보 관련 학자 등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함은 거론할 나위가 없는 자명한 일이다.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는 도서관법 제7조의 조문을 넘어선 경기도도서관과 경기도내 지방문화원의 창조적 협업(協業)이 필요하다.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경기도 문화원 한마당축제

페스티벌 31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축제의 장을 열게 되었다. 경기도 각 지방문화원이 얼마나 노력하고 또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는 자리다. 이 행사는 초기 ‘경기도문화원한마당’이라는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명을 ‘페스티벌 31’ 이라고 바꾸면서 경기도 31개 문화원을 대표하는 상징적 숫자를 사용했다. 일회적 행사가 아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행사의 주인이 지방문화원이 되도록 꾸며졌다. 지방문화원이 빛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의 핵심은 지방문화원이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경기도문화원축제 ‘페스티벌 31’ 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과정을 중시하며 진행되었다.

첫 번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개별 지방문화원의 협력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얼마만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즉, 얼마나 많은 문화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이 축제를 통해 향후 연합회와 지방문화원 간의 유기적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오하고자 했다. 두 번째, 문화원의 성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전문가, 큐레이터,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세 번째, 경기도지방문화원이 분야별, 유형별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기획’ 된 전시, ‘기획’ 된 공연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페스티벌 31’ 이라는 축제의 성격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페스티벌 31’ 은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의 활동을 공유하는 축제한마당이다.

경기도 지방문화원 활동을 더불어 나누는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창조적 결합 가능성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협력네트워크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와 같이 축제의 성격과 방향이 설정되면서, 그것에 부합되는 프로젝트 기획을 시작하여 세 가지 프로젝트와 함께 어르신대표브랜드축제인 ‘나이 없는 날’ 을 추진하게 된다.

프로젝트 I	프로젝트 II	프로젝트 III	프로젝트 IV
내가 있는 날 31	생각하는 손 31	문화원 이야기 31	나이 없는 날 31
응답형 콜라보레이션 콘서트	문화원 활동작품 기획전시	발간물 아카이브	권역별 어르신 축제

구체적으로 각 프로젝트별 기획의도와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I 융복합코라보레이션 콘서트 <내가 있는 날 31>

지방문화원 동아리 중심의 콜라보레이션 기획콘서트

참여자들이 공연의 주인으로서 생활예술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기존 예술장르(콘텐츠)의 재배치가 전달하는 역동적 힘과 관점전환의 가능성을 담아낸 기획콘서트로 전문가와 함께 기획·연출된 콜라보레이션 콘서트의 전형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움, 삶을 촉촉하게 하는 것
구리문화원 합창동아리 <에다미>

연결본능, 여기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안성문화원 <우리소리예술단>
연천문화원 <예랑민요단>

세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
포천문화원 <실버악단>

변주, 무한한 가능성에 나를 열어두는 것
부천문화원 <프라이무쿨렐레앙상블>

세대공감, 일단 함께 보는 것
광명문화원 <아키모>

공통,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함께 가는 것
파주문화원 <난타팀 COLOR>

프로젝트 II 문화원 활동작품 기획전시 <생각하는 손 31>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 기록물 아카이브 기획전시

새벽인간과 다이아몬드 가득한 하늘의 루시! 그 옛날 인류의 조상의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화석, 흙, 깨진 돌, 뼈 등의 우연한 발견이 있었고 추측하고 유추하며 제2차 가공,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문화원 이야기 31> 기획전시는 단순한 기록물의 관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활동을 읽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역사와 기록은 오래된 문화유산이 아니라 언제나 일상의 소통과정이었다. 지역의 향토사가 한국역사를, 지역의 문화활동들이 한국문화의 토대가 된다. 기록물 아카이브 기획전시는 각 문화원들에 의해 연구 보전된 향토사화 현재로 진행 중인 지역민들의 활동들을 한자리에 모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존재가 그리워질 때, 당시의 사소한 일상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을 기획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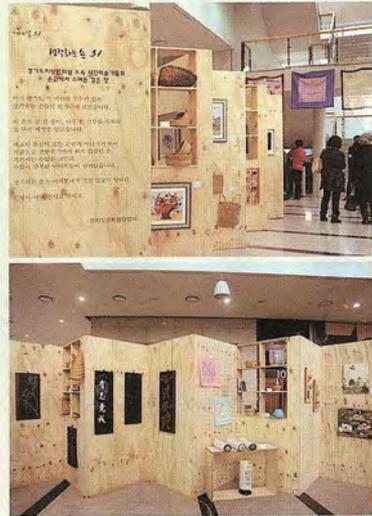


프로젝트 III 발간물 아카이브 <문화원 이야기 31>

**경기도지방문화원 소속 시민예술가들의
손끝에서 번지는 깊은 향**

재료의 물성이 갖는 근원적 에너지가 모여 작품으로 전환되기까지 쉬지 않았던 손, 거기에는 수많은 고민과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경기도 각 지역의 무수히 많은 생각하는 손들이 지역의 자원들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관객에게 말을 걸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문화와 예술을 한다는 것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땅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낮설게 보기’의 과정과 결과물을 일반인과의 소통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왔다.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다. 그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성찰과 고독의 몸부림의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이다. 그 옛날 예술가와 대중이 만나 소통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듯이 말이다. 여기 경기도 각 지역의 무수히 많은 생각하는 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은 왜 그려야 했으며, 왜 찍어야 했으며 왜 손을 움직여야 했는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재맥락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때문에 나열 또는 진열이 아닌 기획된 전시가 필요했던 것이다.



프로젝트 IV <나이 없는 날 31>

60세 이상 아마추어 어르신 예술가들이 소통과 나눔의 리더로서 전국 16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는 어르신문화대표브랜드축제로 기획·진행되었다.



그동안 경기도단위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활동을 해 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이제야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을 한데 모으는 데 드디어 성공한 것 같다.

지방문화원은 각각 개별독립법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그 특징과 장점도 각각 다양하다. 때문에 개별화되어 있는 문화원을 하나의 맥락으로 모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난 4년 전부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방문화원 중심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중에도 다양한 형태의 기획사업을 전개하여 지방문화원 간 네트워킹을 도연합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그랬던 것이 이제야 그 성과가 본 행사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 같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개별 지방문화원의 협력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얼마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경기도문화원축제〈페스티벌 31〉.

본 행사를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일보 기사를 통해 본 리뷰기사가 객관적 시각에서 이 사업의 맥을 관통하고 있어 그 기사를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경기문화저널 제10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리뷰] 道문화원연합회 '페스티벌31'

순수한 열정이 빛은 '감동 무대'

참 눈물 나는 무대였다.

숙련된 프로 아닌 아마추어, 잘 짜여진 극본 대신 나열식 공연, 그럼에도 예상 밖 감동을 느끼면서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답은 금세 나왔다. 순수한 열정이었다. 지난 21일 수원에서 펼쳐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페스티벌 31' 얘기다.

세계적인 성공학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존 맥스웰은 "열정을 태울 때만 우리는 살아남는다. 열정은 의지의 연료"라고 했다. '페스티벌 31'은 이를 방증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문화원이 총출동해 열정을 불태우고 삶의 의지를 일깨웠다.

이 행사는 수원의 공연장 SK아트리움 전관에서 4개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난 4년간 시군문화원과 다양한 형태의 기획사업을 벌여왔던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처음으로 그간 성과를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공연장 로비에서는 2개 전시가 펼쳐졌다. 각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창작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생각하는 손 31' 과 문화원 관련 영상과 발간물 등을 소개하는 아카이브 기획전 '문화원이야기 31'이다.

"나무로 만든 솓대를 냈다. 내가 주인공이어서 좋고 또 좋다"

이번 전시에 작품을 출품한 허삼열(77·평택) 할머니의 소감이다. 실제로 이날 문화원을 거점으로 다채로운 예술작업을 벌인 모든 도민이 주인공이었다.

민화, 도예, 꽃누르미, 전통매듭공예, 규방공예 등 정성스러운 손품이 역력한 작품이 빛을 발했다. 문화원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각종 포스터들은 박제된 소소한 일상을 역사로 환기시키는 창문 역할을 했다.

또 소공연장에서 동시에 열린 60세 이상 어르신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축제 '나이 없는 31'은 주최 측 관계자가 "복새통도 이런 복새통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그들의 '신명나는 수다'는 무기력한 노인이라는 편견을 깨뜨렸다.

메인행사로 펼쳐진 공연 '내가 있는 날 31'은 화룡점정이었다.

각 문화원의 문화학교와 동아리를 통해 실력을 쌓은 시민이 프로 예술가와 꾸민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학예회' 아닌 진짜 공연이었다.

루나힐과 프로젝트밴드, 어린이중창단, 광명문화원 기타동아리 '아키모'의 연주는 기립 박수를 받았다. 암전된 무대에 LED 신발과 복채를 들고 등장한 파주문화원 난타동아리 'COLOR'는 현란한 볼거리와 역동적인 리듬으로 관객을 들썩였다.

무대에서 넘어지거나 하모니가 흔들리는 등 실수도 나왔다. 하지만 공연 중간 메인 무대에 상영된 각 공연팀의 솔직담백한 인터뷰는 이를 상쇄시켰다.

다만 700여 명의 관람객이 공연자 혹은 문화원 관계자라는 점은 아쉽다. 내년에는 문화원의 역할을 똑똑히 보여주고 지역 문화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이 축제에 '문화원 밖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파주문화 포커스

파주문화원 우관제 원장님을 만나다

동행, 파주문화의 전방위 안내자 파주문화유산해설사회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지방문화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문화적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문화원 원장이 진단하는 현재 문화상황은 어떠하며, 그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인터뷰이다.

(편집자 주)

파주문화원 우관제 원장님을 만나다 —

머리는 낮게, 이상은 높게

‘파주’ 하면 떠오르는 것은 ‘헤이리마을, 영어마을, 프로방스, 출판단지’ 등 세련되게 기획된 문화조성 도시라는 이미지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파주문화원은 어떤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파주문화원을 대표하는 반가운 얼굴, 우관제 원장님을 만났다. 조금 일찍 도착한 필자가 문화원을 둘러보는 동안, 복도에서 바쁜 걸음으로 돌아오는 원장님이 보였다. ‘울곡문화제’를 앞두고 오전부터 일정을 소화하고 오셨다고 한다. 서글서글한 눈매에 호방한 웃음, 언제나 일을 의욕적으로 해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다는 인상이 강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침 오늘 전미관 과장님 생일이라고 원장님 도착하시자마자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하게 됐네요. 전 직원이 화목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파주문화원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많이 애쓰는 것이 역대 파주문화원장님들을 포함한 문화원 임직원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문화원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위아래 사람과 함께 갈 줄 알아야 문화원에도 미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바쁘신데 인터뷰 일정을 잡은 건 아닌지요.

바쁜 거야 오늘이든 내일이든 매한가지이니 이렇게 서로 시간 내서 만나지 않으면 못 만나요. 마침 또 전 원장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근처까지 오신 김에 점심식사 모시기로 했는데, 도연합회에서도 멀리서 오신 김에 오늘 같이 점심식사하시지요. 제가 전 원장님들을 하늘같이 모시고 또 형님 아우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챙겨드리는 편입니다. 제 1대 원장님부터 이력사항이나, 문화원 연혁도 정리하고 또 자주 찾아뵙고 안부도 전하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매달 열어서 각 지역 단체 구성원이 모이는데 매달 의제가 없어도 보고 싶어서 찾아올 정도로 아주 각별한 관계입니다. 문화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원장님들 현황이나, 문화원 연혁을 손수 정리하실 정도로 애정이 각별하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살아오신 발자취도 궁금합니다. 파주문화원에 오시기 전 원장님이 걸어오신 길은 어떠셨나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파주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내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난에서 깨어나려면 저축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새마을 운동 때 새마을금고를 창립하여 그 시골에서 제일 큰 은행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 최연소 이사로 선출되기도 하고... 열심히 한 만큼 또 인정받을 정도로 일했어요. 그러던 것이 여러 단체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될 정도로 점점 넓은



사회로 진출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젊어서 고생하면서 일궈온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였는데, 문화원에서도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몸은 바쁘더라도 마음이 아주 보람칩니다.

원장님 프로필을 보니, 독특한 이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풍수지리사 자격도 주목할 만하지만, 특히 예의범절 교육이나 전례문화에 관련된 이력들이 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하. 풍수지리 쪽은 제가 파주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저기 여러 유명인들이 대소사 앞두고 잠시 봐달라고 해서 불러 다니느라 바쁠 정도지요.

어려서부터 어르신 뒤를 따라 차레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례를 익히고 조상을 모시는 것에는 도가 텅습니다. 그러다 장차 나이가 들면서 아버님께 축문 쓰는 법, 족보 보는 법도 익히고, 한문도 독학하여 공부해왔습니다. 예의범절과 한국 전통 유교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절로 공부하고 깨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군대에 있을 때도 예절교육을 하게 되고, 파주 교하향교 장의로 선출되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전례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일을 많이 맡게 됐습니다. 방촌 황희선생 영묘제, 파주 개성인삼축제 고유제 등 맡게 되는 역할이 점점 크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무형문화제 제85호 석전제를 제1기로 전수받고 향교에서 활약을 했지요. 그 이후로도 한국 전례연구원 수료, 성균관 실천예절지도사, 풍수지리사를 취득하는 등 재밌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 와 문화원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향교와 서원, 유적지 등 전통문화 보존뿐 아니라, 문화학교를 정착시켜 전통문화의 재현과 계승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 파주문화원의 사업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간략한 파주문화원 소개와 주력하고 계신 사업 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파주문화원에서는 첫 번째로, 향토사 연구를 위해 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 및 전승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과 함께 파주실록, 파주문화유적지, 파주역사 문화기행, 역사 속의 임진강, 파주금석문대관, 파주지명유래와 전설, 의례해설



전서 등 파주의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발간책자와, 파주의 소식을 전하는 파주문화도 열심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유적답사를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향토유적답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한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진문화유적지 순례 등 다양한 유적답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주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울곡문화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임진강 민속축제', '파주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창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교육 강좌를 통해 선진 문화시민양성과 동호회를 통한 생활문화예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페스티벌 31' 에도 파주문화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어르신들이 짚풀공예작품으로 전시에 참여하고, 또 난타동아리가 대표공연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열정도 열정이지만, 그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다 의미가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울곡문화제' 는 파주문화원이 특히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파주가 낳은 대(大)선현인 울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과 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무엇보다 시민이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라 지자체에서도 앞장서서 축제를 홍보하고, 시민의 호응도도 높은 편입니다.

대북을 이용한 서예 시연과 꽃남 어름산이의 전통줄타기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울곡 선생의 구도장원을 기리기 위해 과거에 급제한 후 귀향하는 모습을 재연한 유가 행렬은 아주 장관입니다. 울곡 선생의 후예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시민길놀이 행렬에 30여 개 단체 천여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파주시민의 화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에 초기 2천만 원 단위의 예산규모를 27회째를 맞는 올해는 억 단위의 파주의 대표축제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규모와 성과 면에서 파주문화원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 『경기문화저널』에서는 지난 호 '파주이야기 할머니' 를 주제로 기사가 나갔었는데요. 읽어보셨는지요?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파주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쉽고 재밌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획이라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리시는 파주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은 무엇일까요?

파주문화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관의 역할은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헤이리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만큼 그 역할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문화 산업지역의 메카로 급성장하고 있는 출판단지 또한 세계의 출판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마을도 현재 운영적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영어대학으로 승격하여 운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파주지역이 브랜드를 가지고 또 문화원이 함께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파주 일대의 탐방코스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출판단지 → 통일동산 → 임진각 → 도라산 → 판문점

| 통일동산 → 헤이리 → 황희유적지 → 이이유적지 → 윤관장군묘 → 헤음사지

이런 식으로 지자체와 문화원이 협력하여 파주시민과 관광객들이 파주를 더 잘 이해하고 파주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획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그리시는 파주문화원의 미래는 굉장히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파주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파주문화원을 이끌어 오시면서 '아,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점은 꼭 바꾸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어무래도, 문화원과 직원들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야 지역사회에서 문화원장이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명예롭게 일하고 있지만, 문화기관의 복지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원조례나 문화원진흥법을 개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문화원이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직원도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문화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문화원 차량을 마련했는데 이제 문화원사만 지으면 내 할 일은 다하고 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비전을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관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자신을 낮춰 주변사람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파주문화원 뿐만 아니라 파주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넓게 보고 사업적 이상이 높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를 나누는 한 시간여의 시간동안 숨이 가빠 보일 정도로 바쁜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직원들과 선임 원장까지 챙기시며, 문화원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높이 볼수록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의 전통문화와 기획된 문화단지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파주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조선화*



- 1 다문화연희단오색찬란(2013)
- 2 7월 문화원 임원회의
- 3 문화원 정기총회
- 4 문화가족 역사탐방
- 5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 6 시·도의원 역사탐방
- 7 DMZ 포럼
- 8 대보름 연날리기 한마당



* 경기문화저널 제8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동행,

파주문화의 전방위 안내자 **파주문화유산해설사회**

“잠시만요…”

“삼릉에 가면 물 깊이는 어때요? 앉아서 놀만한 곳은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 놀아도 돼요?”

“네~ 가능합니다.”

파주문화원 직원이 나들이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은 모양이다. 때마침 경기지회 편집팀과 인터뷰하고 있던 파주문화유산해설사들에게 삼릉 상황을 재차 확인하더니 전화 속 문의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준다.

‘이런 걸 물어보려고 문화원에 전화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럼 이런 정보는 어떻게 알아야 하지?’ 하는 다른 생각이 반문한다.

전화 속 나들이 주인공이 어떤 규모의 휴식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동네 나들이는 가봐서 어떻게 놀다 갈지 상황에 맞는 결정을 취하는 선행동 후처방 형태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찌 보면 단순하고 시시한 문의전화 같지만 정작 날짜를 잡아 가족이 놀러 갔는데 앉아서 놀 곳도 없다면 큰 낭패일 것이다. 나들이를 준비하는 가족에겐 결정적 단서(?)일 수밖에 없는 정보를 누군가에게서 듣게 된다면



현수막을 들고계신 해설사님들 체험은 답사의 대세^^;

그보다 더 큰 서비스가 있을까? 이런 작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면 더 쾌적한 쉼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지는 물론 휴식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주시청에 전화하면 파주문화원의 문화유산해설사에게 연결해준다고 한다.

파주문화원(원장 우관제)이 동네 구석구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안내가 가능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05년부터 파주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이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후부터였다.

그러나 더 눈여겨볼 것은 이미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내에 향토문화답사반이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었다는 데 있다. 경기재단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도 맨땅에서 시작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어 꽃피울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토문화답사반은 이윤희 향토문화연구소장의 지도에 의해 매주 한 번씩 강좌가 진행되어 6년을 이끌어왔다고 한다. 기초반과 심화반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지도와 실습을 진행하면서 해설사 양성의 기초를 다진 셈이다.

2005년에 시작된 파주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은 기존의 향토문화답사반에서 교육하고 있던 수강생

과 새롭게 지원한 20명이 7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 1기 과정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되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심화보충학습을 통해 완료되었다. 2009년 2기 과정에 참여한 10여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파주문화를 해설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20명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된 조건은 격주로 진행되는 토요 휴무제와 파주 인근에 조성된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출판단지, 영어마을 등이 조성되면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파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외부조건과 잘 맞아떨어졌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유적지 해설만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주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을 기획한 의도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서 파견된 문화해설사들이 있으나, 배치된 대표적인 유적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일지역 내 존재하는 다른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이 미흡하다는 점과 안내 인력이 적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장시간 안내가 어렵다는 점과 파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이 파주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다. 문화유적해설사가 아니라 문화유산해설사라는 말을 쓴 것도 파주문화, 파주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안내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의 최대 강점은 드러난 문화유적에 대한 유창한 설명이 아니라 동네마다 숨겨진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파주유적지 순례를 위한 안내뿐 아니라 청소년 유적지 순례, 향토문화체험반 운영, 울곡문화제 울곡기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뛰뛰빵빵 주말버스'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파주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주말 프로그램으로서 선사시대와 궁시박물관, 야생화체험, 중남미문화원, 헤이리 예술마을체험, 석골마을체험, 향교·서원의 민속놀이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 파주문화를 전방위로 안내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의 자산이다.

여행은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차이를 느끼는 곳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낯설음을 통해 나를 대면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중화된 정보는 전국 어디를 가나 평균치를 경험하게 한다. 먹는 음식, 머무는 곳, 보이는 것... 모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만든다. 유적지 설명도 스마트폰에 탑재된 내비게이션과 정보검색 앱



봄빛이 환하게 온다 - 파주삼릉 용암사에서

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파주문화유산해설사들이 파주를 해설한다는 것은 동행을 의미한다. 어떤 주제로 여행하고 싶은지, 의도된 기획이 있는지, 할애될 시간은 얼마만큼인지, 책정된 예산은 얼마인지, 누가 참여하는지 등에 따라 안내의 내용이 달라진다. 또 행선지와 행선지 사이의 드러나지 않은 공간에 대한 안내도 놓치지 않는다. 삼릉의 물깊이를 알려준 것처럼.

파주문화해설해설사 팀에는 별명이 '우리 파주' 인 회원이 있다. 말을 시작할 때 마다 우리 파주로 시작해서 붙은 별명이다.

“우리 파주는요...” 라는 말에서 파주는 더 이상 해석해야 할 대상(object)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의 이야기(subject)로서 파주이다. 그래서 이들과의 문화유산해설사의 과정은 즐거운 동행이다.

민병은*

* 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 문화집합 대표, 경기문화저널 제1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요즘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시대다. 그 뜻을 살펴보면 'story' 와 'tell' 과 'ring'의 합성어로 옥스퍼드 영어대사전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이라 정의하고 있다. 단순히 이야기를 구성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꿈과 감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설득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경향을 대변하는 것이 지역문화유산이다. 지역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의 만남은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산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들이 발굴되고,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파주문화원(원장 우관제)은 기나긴 생명력을 지닌 옛 이야기로 파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이전의 지역문화, 지역인물, 지

역이야기를 잘 모른다. 관심분야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옛날 얘기는 그야말로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의

할머니 이야기 보따리에
아이들 눈망을 초롱초롱

파주지역 인물·역사·설화 등 동화 구연 형태로 각색해 들려줘

찾아가는 문화교육 강좌 일환으로
2011년부터 3년째 운영 중



미에서 파주문화원이 어린이들에게 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문화교육 강좌’는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파주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문화 교육 강좌’의 대표 브랜드,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는 스토리텔링 시대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사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까지 총 40여 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파주 지역의 위인과 관련된 전설과 지명 유래 등을 동화 구연 형태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통놀이 수업은 ‘땀’이다. 게다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울곡문화제’에서 파주 관련 설화 그림을 바탕으로 ‘이야기 그림전’도 개최해 왔다. 3년차를 맞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가 파주문화원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할머니 스토리텔러의 힘이 컸다. 유진경(69)·윤영자(74) 어르신은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 4~5년간 동화구연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인형극 공연에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역 설화나 이야기를 각색하고 직접 수업 자료까지 준비하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며 열정적인 수업 매너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파주는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다. 오랜 역사의 도시인만큼 큰 인물이 많이 고장이 바로 파주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 울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 청백리의 표상이자 명재상으로 알려진 방촌(龐村) 황희(黃喜, 1363~1452), 고려시대 여진 정벌의 명장 문숙공(文肅公) 윤관(尹瓘, 1040~1111),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의 대명사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 조선 중기 문신이자 성리학자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 등 한국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위인들이 바로 파주와 함께하고 있다.

10월 19일 오전, 파주시 운정초등학교 시청각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유진경·윤영자 어르신이 정감 어린 목소리로 파주의 옛날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바쁘다.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운정초교 2학년 어린이 137명은 울곡 이이 선생을 포함 파주의 대표적 선현인 방촌 황희 정승과 윤관 장군 ‘파주 3현’의 이야기와 설화 등을 경청했다. 동화책을 통해 울곡 이이와 황희 정승에 대해 친숙하게 느낀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듣는 중간 중간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준희(운정초교 2학년 4반) 어린이는 “예쁜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들려준 황희 정승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미소를 지었다.

수많은 개인들의 짧은 인생이 모여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조우하고 대화의 장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자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문화원은 이야기의 힘을 믿고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힘을 키우고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강현숙 기자 2014. 10. 28 ©경기일보



파주문화원 365

2014 갑오년 대보름 연날리기 한마당

제16회 짚 · 풀문화공예품 공모전

문화가족 역사문화유적지 순례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제27회 율곡문화제

파주문화학교 · 어르신 문화학교

뛰뛰빵빵! 주말버스학교

향토유적답사

평생학습관 : 전통문화체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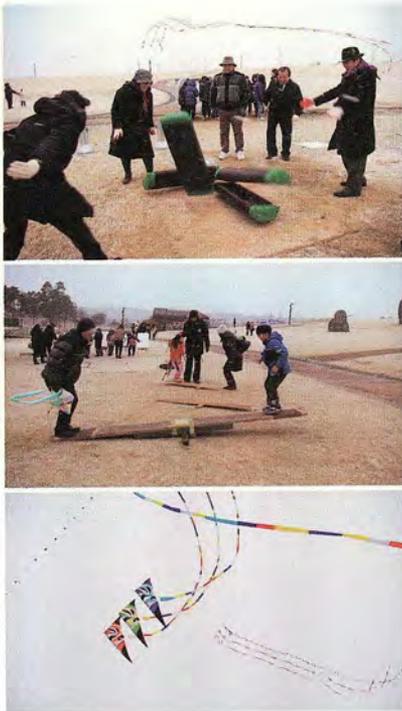
평생학습관 : 문화유산해설사 파견

제47회 창립기념식 및 제14기 문화학교 수료식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우수전통 민속보존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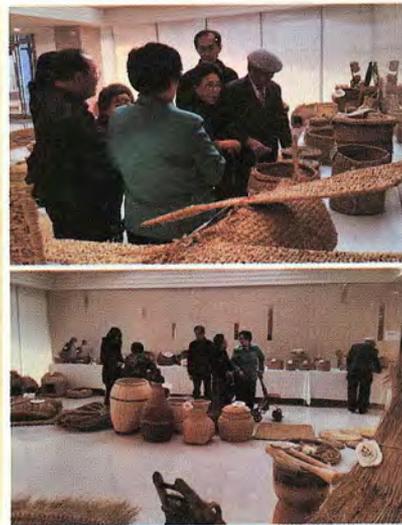
유교문화행사 지원



2014 갑오년 대보름 연날리기 한마당

2월 8일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연 높이 멀리 날리기 대회, 민속놀이 한마당, 제기차기경연, 가족 윷놀이대회, 연 만들기 교실, 소망연 날리기, 부럼판매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한 해의 소망을 담은 연을 하늘 높이 날리고, 무사태평과 만사형통을 기원하며 부럼을 깨어 먹고, 가족과 함께 전통 놀이도 즐기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오후부터는 한 해의 나쁜 일들을 모두 덮어주듯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해, 신년의 소망을 담은 연을 하늘 높이 날려 보내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제16회 쥘 · 풀 문화공예품 공모전

1월 13일~2월 14일(공모), 2월 28일(시상),
2월 28일~3월 7일(전시) | 문정행복센터

파주 쥘품문화공예품 공모전은 우리 전통 생활도구인 쥘 · 풀 공예품 제작기능을 발굴 보존하고, 전통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16회 공모전에서는 파주시 내 7개 노인정에서 9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쥘신, 등구미, 씨리비 등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 164여점을 출품했다. 노인정 별로는 파평면 덕천리에서 27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38개 작품을 출품해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으며, 대상은 '색누늬 도래맹석'을 제작하신 이재환(75세, 월릉면)님이 선정되었다. 특히 경기도 과천문화원, 과천향토사연구회의 초대로 수상작을 비롯한 출품작 100여 점이 '쥘 · 풀 · 나무이야기' 전시(9월 12일~26일)를 통해 선보여, 파주지역 농경생활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전달해주었다.



문화가족 역사문화유적지 순례

6월 24일 | 경기도 여주 일원

파주문화원은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해 타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가족들의 소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양시키고자 역사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했다.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된 답사는 명성황후 생가 방문을 시작으로, 천년고찰 신륵사 견학에 이어 효종과 세종대왕의 왕릉인 영·영릉(英陵·寧陵)을 차례로 둘러보며 진행되었다. 또한 목야박물관에서 전통 목조각과 불교조각상 등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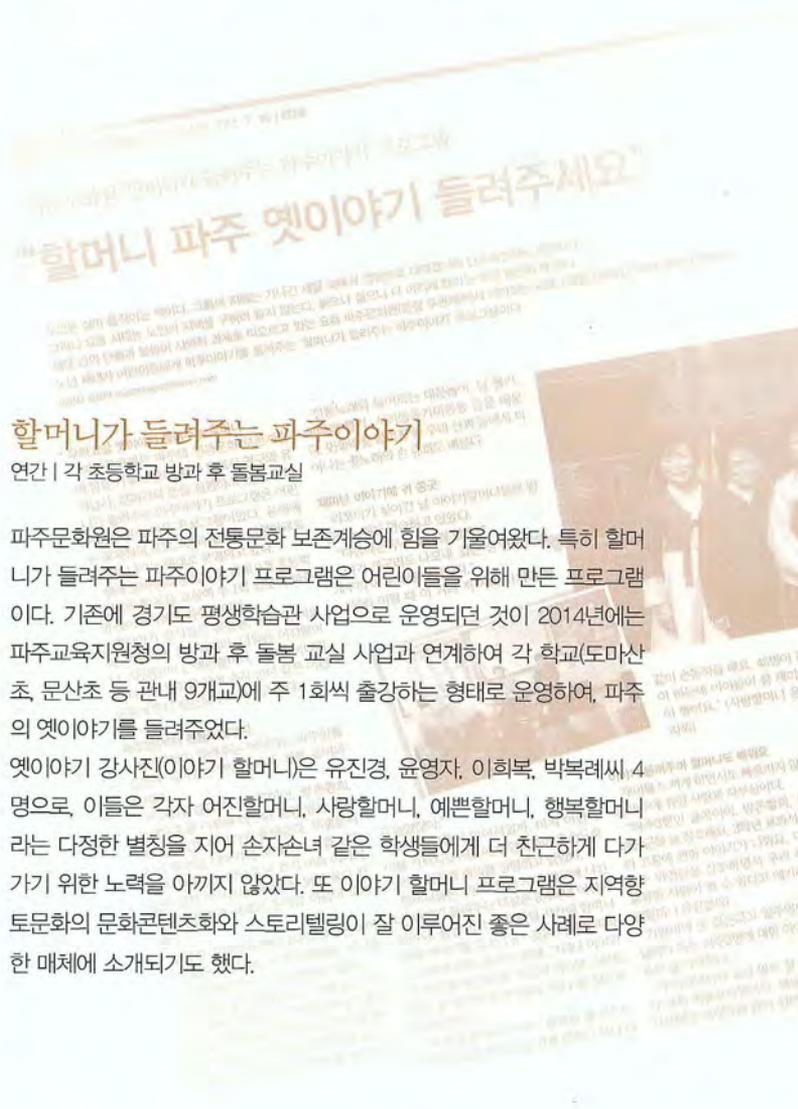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연간 | 각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파주문화원은 파주의 전통문화 보존계승에 힘을 기울여왔다. 특히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경기도 평생학습관 사업으로 운영되던 것이 2014년에는 파주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돌봄 교실 사업과 연계하여 각 학교(도마산초, 문산초 등 관내 9개교)에 주 1회씩 출강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파주의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이야기 강사진(이야기 할머니)은 유진경, 윤영자, 이희복, 박복례씨 4명으로, 이들은 각자 어진할머니, 사랑할머니, 예쁜할머니, 행복할머니라는 다정한 별칭을 지어 손자손녀 같은 학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은 지역향토문화의 문화콘텐츠화와 스토리텔링이 잘 이루어진 좋은 사례로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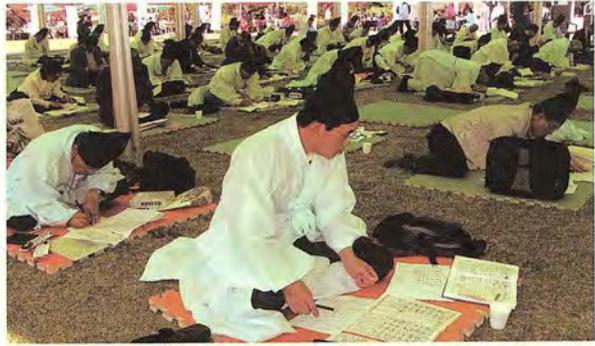
제27회 율곡문화제

10월 11일~12일 | 율곡선생유적지 및 법원읍 일원

파주가 낳은 대학자이자 경세가인 율곡선생을 추앙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선현들의 삶의 지혜를 되새기는 제27회 율곡문화제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행사 첫날에는 대밭을 이용한 서예 퍼포먼스와 꽃남 어름산이의 전통출타기가 열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율곡선생의 구도장원을 기리기 위한 유가 행렬과, 파주 시민들이 함께하는 길놀이 행렬에는 이재홍 파주시장을 비롯한 26개 단체 650여 명이 참여해 파주 시민의 화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자운서원에서는 율곡선생을 추모하는 제향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제향에는 황진하 국회의원이 초헌관, 신낙범 파주유림총연합회장이 아헌관, 조규빈 율곡라이온스 회장이 종헌관으로 참례하였다.

또한, 행사 둘째 날인 12일에는 다문화가정의 전통혼례식과 전국 한시백일장, 특색 있는 트로트 마당극 '심봉사'의 딸', 국악 관현악단의 서원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이어져 큰 호응을 받았으며, 파주의 옛 모습을 지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고지도전이 열려 흥미를 지아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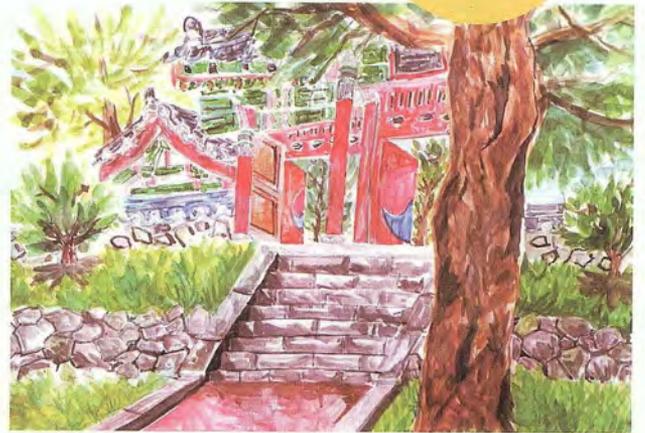
율곡문화제를 기념해 개최된 제18회 전국율곡서에대전, 전국 한시백일장과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에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예활동으로 대상 및 최우수상에 입선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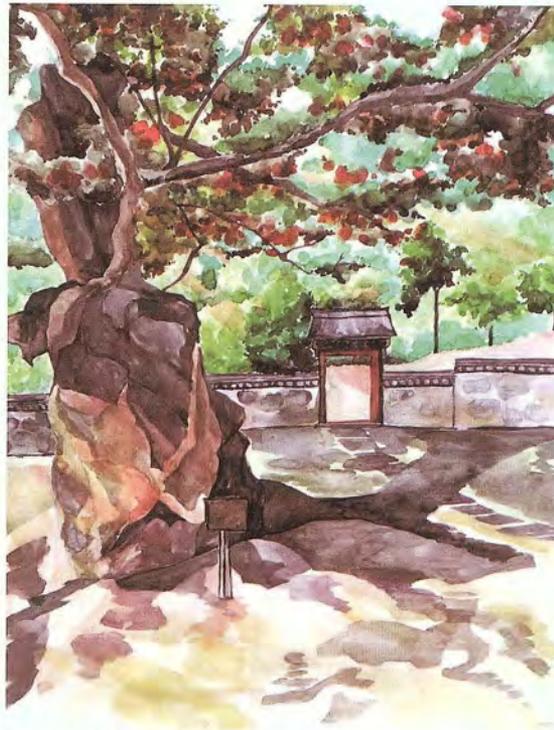
사임당미술제
금상



초등저학년부 안후영(해솔초 3학년)



초등고학년부 서청환(봉일천초 5학년)



중등부 박준영(발산중 3학년)

전국한시백일장
장원

秋色佳節(추색가절)

박혁선(朴赫善)

미재추색감탄장 美哉秋色感嘆長
 노하천고풍염상 露下天高風染霜
 택반유자로서백 澤畔幽姿蘆絮白
 리변교태국화황 籬邊嬌態菊花黃
 빈문울곡무쌍사 彬文栗谷無雙士
 승경파주제일향 勝景坡州第一鄉
 오곡등풍가절제 五穀登豐佳節際
 도도흥취락경상 滔滔興趣樂傾觴

아름답고내 가을색에 감탄함이 크도다
 이슬내린 하늘은 높고 단풍은 서리에 물들었다
 웅덩이 옆 그윽한 자태 갈대솜 하얗고
 울타리 옆 교태인 국화는 누렇다
 문체가 빛나기는 울곡이 무쌍한 선비요,
 경치가 좋기로는 파주가 으뜸 향이다.
 오곡이 풍년든 좋은 계절에
 도도한 흥취에 즐겨 잔을 기울이네.

올곡백일장
운문부문
최우수

〈중등부〉

10월이 가면

차예진(삼광중 3학년)

〈고등부〉

코스모스 피기도 전에

남금주(삼광고 2학년)

〈초등부〉

코스모스와 바람

박채연(용미초 3학년)

한들한들 흔들리는 나뭇잎
바람이 놀러왔나봐

흔들흔들 코스모스도
함께 놀자고 춤을 추네

향기로운 코스모스 꽃향기따라
장난꾸러기 잡자리가 술래잡기

나도나도 잠자리채 들고
바람 잡으러 썩썩.

가을, 바람이 분다
 가슴이 시려온다
 너와 이별하던 날
 세상이 멈춘 듯 울던
 나의 지난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너와의 추억이 깃든 바람만이
 나를 자꾸 붙잡는다
 10월이 가면
 너를 잊을 수 있을까
 붉게 타오르는 노을 바라보며
 텅 빈 내 마음 다잡는다
 10월이 또 간다

코스모스 피기도 전에
 사랑하는 우리아빠 떠나갔네
 살랑이는 코스모스가 가장 좋았던
 우리아빠
 이젠 그 꽃 한송이조차 보지 못하는
 우리아빠

바람 불고 비 내리는 날에
 기운없는 코스모스는
 마치 고된 일을 마치고 온
 우리아빠 모습이 생각나네

아빠는 코스모스로 변해
 내 곁에 머물고 있는지
 코스모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생각나는 우리아빠 모습

이제 내 곁에 없지만
 한 송이 코스모스가 되어
 나의 곁을 지켜주길

〈초등부〉

10월

김율이(파주와동초 6학년)

무더운 여름이 가고, 계절 중에서도 높디높은 하늘과 쌀쌀함을 지닌 가을이 왔다. 아기 손바닥만 한 빨간 단풍잎과 노오란 은행잎이 너무 앙증맞고 귀엽다. 난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가을이 좋다. 시원한 가을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빨강고 노란 나뭇잎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10월에 공휴일로 쉬는 날이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공휴일은 개천절이고 두 번째 공휴일은 한글날이다.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이 그저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니 슬펐다. 공휴일은 그냥 쉬는 날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뜻깊은 날이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주에서 지구, 지구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한국, 한국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파주, 파주에서 자운서원. 그 속에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문이다. 오늘 자운서원을 오면서 황금빛으로 물들여진 벼를 보았다. 그것을 보고 진짜 시월이 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가족끼리 자운서원 올곡문화제에 나들이 와서 맛있는 돼지껍데기도 먹고, 김밥도 먹고, 이렇게 글도 쓰고, 정말 매년 여기 올곡문화제에 와서 많은 추억을 쌓고 가는 것 같다. 올곡문화제에 매년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가을에 나들이하러 오기에 정말 좋은 것 같다. 모든 것이 반짝여 모이는 달, 10월은 정말 아름답다.

구름 한 점 없고, 맑은 하늘 아래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다.

〈중등부〉

웃음을 전하는 이들

정하임(금릉중 3학년)

지난 2학년 겨울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이라 곧 3학년으로 올라갈 우리는 진로교육이 한참이었다. 쇼콜라티에, 큐레이터, 보험계리사 등 처음 듣는 생소한 직업도 많이 알게 되었던 때였다고 기억한다. 전부 하나같이 신기한 직업이었지만 그중에서 단연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웃음치료사'였다. 웃지 못하는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거나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물론 전부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웃음치료를 소개하는 영상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환하게 웃고 계시는 노인분들이었다. 주름진 얼굴로 자글자글 웃으시는 모습에 속으로 탄성이 나왔다. 그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웃음치료사라는 것을 난 한순간에 알 수 있었다. 그가 사람들을 웃기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간단했다. 재치 넘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순발력,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결코 지지 않을 입담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의 표정이, 손짓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를 정신없이 빠져들어 듣다 보니 어느새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정말 그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것이다. 그건 진짜 웃음이었다.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면 웃음치료사도 엄연한 직업이다. 그렇다는 것은 수입이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웃음치료를 과연 돈까지 주면서 고용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마음껏 웃어볼 기회가 얼마 없다는 것이다. 옛 조상들은 크게 소리 내어 웃는 것이 천박해 보인다 하여 웃음을 멀리했고 그 사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웃을 때 괜히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흔한 예능프로그를 보며 웃어보려고 해도 너무나 바쁜 사회인들에게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곳에서 전문웃음치료를 두는 건 가 싶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생물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행복은 곧 웃음이다. 티 없이 맑게 웃는 아이들, 인자하게 웃는 어르신들을 보면 부럽고 왠지 자신도 웃음을 짓게 되지 않는가? 웃음은, 그리고 행복은 절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서로 나누고 웃음을 전하여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실 된 행복을, 진실 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한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 웃어 보인다면 나비효과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고등부〉

소녀의 코스모스

강동욱(봉일천고 2학년)

덜컹, 덜컹- 버스 안은 한산했다. 나 또한 그 적막함에 젖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에 보이는 익숙한 풍경에 손을 뻗어 빨간 버튼을 눌렀다. 적막했던 차 안에 삐익, 하고 이질적인 소리가 울렸다. 이윽고 큰 몸집의 버스는 자신의 평안함을 깨뜨린 이방인을 길 위에 놓아두곤 다시 텅텅거리며 길을 갔다. 떠나가는 버스의 뒤통무니를 보던 시선을 돌렸다. 그 후, 내 시야에 보인 것은,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코스모스였다. 코스모스라... 나에게 코스모스는 어릴 적의 추억이자, 한 소녀의 정취였다. 그 소녀를 처음 만났던 건 열여덟 살의 가을이었다. 그때의 나는 고3이 되기 전 마지막 여유를 즐기기 위해 할아버지 택에 늘러온 상황이었다.

“으으, 심심해라.”

“심심하면 계곡이라도 다녀오거라.”

“계곡이요? 우와, 다녀오겠습니다!”

“물이 깊으니 조심해야 한다!”

뒤에서 할아버지의 걱정스런 충고가 들렸지만, 계곡에 정신이 팔린 나는 자세히 듣지 않고 내달렸을 뿐이었다. 그 결과, 나는 차디찬 계곡물에 빠졌다. 이끼와 물기로 인해 잔뜩 미끄러워진 바위 위에서 뛰어난 것이 원인이었다. 슬프게도, 나는 수영을 못했다.

“어푸, 어푸... 살, 살려주세요!”

한참을 소리 지르며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음에 내 몸에서는 힘이 점점 빠져나갔다. 이러다간 정말 죽겠구나, 싶던 그 때였다.

풍덩- 허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에 의해 내 몸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곧 나는 쿨럭이며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리고 내 눈 앞에는, 긴 머리가 젖어 얼굴에 이리저리 붙은 상태의 여자가 있었다. 나는 나와 비슷해 보였다. 동네에 얼마 없는 동년배의 등장에 우린 서로를 뻘히 쳐다보다,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어울리며 동네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집에 돌아갈 시기가 가까워져왔다. 시월의 어느 날, 곧 있을 이별을 예감한 우리는 조용히 동네 어귀를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발걸음에 맞추어 움직이던 소녀의 발이 푹, 하고 멈추었다. 의아함에 옆을 보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보였다. 갑자기 소녀가 왜 이렇게 질린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소녀가 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한 것이다. 멀리, 더 멀리! 우리는 곧 마을 귀퉁이에 있는 회관에 도착했다. 험겨운 듯 숨을 몰아쉬는 소녀에게 갑자기 도망친 이유를 물어보려 할 때였다.

뚜벅, 뚜벅- 누군가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오던 것이다. 나와 소녀는 바짝 얼어붙었다. 어찌서 들키면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나는 본능적으로 들키지 않으려 소녀를 꼭 끌어안았다. 숨 막히던 정적이 지나고, 투둑- 하며 나뭇잎이 몸을 떨었다. 자세히 보니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혀 있었다. 비가 오는 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마자, 하늘에서 썩아아, 하고 비가 쏟아져 내렸다. 점점 다가오던 신발소리 또

한 비가 내리자 다른 곳으로 뚜벅, 뚜벅 걸어가버렸다. 그 소리에, 나와 소녀는 참았던 숨을 내쉬며 안도했다. 우리는 곧,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가을비가 만들어낸 분위기에 취한 걸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스투룩 눈을 감았다. 내가 눈을 감기 전 봤던 마지막 풍경이 아직도 선명히 보이는 듯하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던 가냘픈 코스모스가 말이다.

“뭘, 그다음 날에 내가 바로 떠나게 되었지만...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주제에 어쩔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소녀는, 잘 살고 있겠지?”

어느 날, 예쁘게 포장된 장미를 사가던 중에 본 길 위의 코스모스가 아니었다면 계속 잊고 살 뻔했다. 잠시 동안 무심했던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 후, 예전에 소녀가 살던 집으로 발걸음을 바로 옮겼다. 더 이상 내 기억속의 어린 여자아이가 아닌, 성숙한 여인이 되었을 소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지만 그런 나를 비웃듯, 소녀의 집엔 아무도 없었다. 집 안엔 무성한 잡초와 코스모스만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삭막한 풍경을 떨거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녀네 집 대문이 다시 한 번 열렸다.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인 소녀의 옆집 사는 석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나를 보곤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곤 나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나가셨다. 잠시 후, 아저씨가 다시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갈색의 가죽 수첩이 들려있었다. 아저씨는 수첩을 나에게 건네주시며 내가 몰랐던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소녀가, 널 많이 기다렸단다.”

그 말을 끝으로 아저씨는 떠나셨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아 소녀를 쫓던 사내가 생각난다. 뚜벅뚜벅, 점점 숨을 옥죄어오던 발소리도 또렷이 기억났다. 이제야 그 시절, 소녀의 질린 표정이 이해가 간다. 소녀의 집은, 막대한 빛으로부터 도망치던 신세였다. 결국, 그들은 어느 날 실종되었다고 했다. 소녀는 실종되기 전날, 석 아저씨에게 이 수첩을 부탁했던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녀가 남긴 수첩을 펴보았다.

나와 만났던 날부터 순차적으로 쓰여 있는, 소녀의 일기장이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일기를 읽을수록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결국, 마지막장을 넘기는 순간 내 눈에선 눈물이 떨어지고 말았다. 소담히 놓여 있는 그것은, 말린 코스모스 꽃 한 송이였다. 떨리는 손으로 꽃을 잡았다. 조심했음에도, 오랜 세월을 버틴 꽃은 단숨에 바스라졌다. 컷가에 바람이 불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렸다.

‘애, 그거 알아? 코스모스의 꽃말은...’

-소녀의 순정.

〈일반부〉

그리움이 배가 되는 10월

여장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오늘은 유난히도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른 날이다. 내가 기억하는 유년시절의 많은 날들은 꼭 이랬다. 주말 아침이면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돛자리며 음식가지들을 챙겨 나와 동생을 데리고 팔공산 자락 풀밭에 자리 잡고 앉아 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인 이 좋은 계절을 만끽하곤 했다.

파릇파릇하던 잔디는 군데군데 누런빛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초록빛만 무성하던 나무 이파리들은 붉은 빛, 노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해서 온통 팔공산 자락이 색색의 물감을 흘뿌려놓은 듯한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 때 이후로는 계절의 변화에도 둔감했던 것 같다.

10여 년이 흘러 이제사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레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팔공산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딱 지금의 내 나이 즈음이었던 것 같다.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연을 벗 삼아 뛰어놀던 그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가슴 한편 끈끈한 가족의 유대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다.

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께서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어머니께서는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고 그전만큼 자주 가족 여행을 다니지 못했다. 대학 3학년 여름, 준비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신 아버지. 혼자 쓸쓸히 가셨을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10월에는 아버지의 생신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있기도 한 까닭에 이 즈음이면 유난히 아버지가 그리운다. 그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표현으로 형언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찌 보면 이승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평생 안겨주실 사랑을 한꺼번에 주시고 먼저 가신 것 인지도 모르겠다. 어느덧 나도 가정을 꾸리고 세 아이의 부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곰곰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면 늘 답은 한 가지이다.

평생 가지고 갈 유년시절의 추억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성적 위주의 각박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름다운 계절인 10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물감과 크레파스와 도시락을 챙겨들고 이곳 자운서원에 왔다. 우리는 오늘도 추억의 한 페이지를 꾸미고 가슴에 품은 채 몇 장의 사진으로 남겨 먼 훗날 다시 들추어보며 웃어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파주문화학교 · 어르신 문화학교

3월 ~ 12월 |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각 강의실

[파주문화학교]

파주문화원 문화학교는 2011년 개설된 이후 '생활 속의 문화 창달'이라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다. 서예, 민요, 가야금 등 전통문화분야와 서양화, 바이올린 등 순수예술분야, 향토유적답사 등 시민참여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 파주문화원이 운정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더욱 확대 편성된 문화학교에는 도예, 냅킨아트, 가죽공예 등의 생활공예분야와 다이어트 난타, 몸뽕기생활운동 등 생활체육분야, 캐리커처, 만화창작 등의 응용미술분야도 신설되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꾸준히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문화학교는 매년 5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생활문화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5년도 신규 강좌로는 바리스타, 이트플라워, 생활사주명리, 판소리, 금산리 민요와 선소리이며, 수강신청은 2월 10일부터 전화와 방문접수를 통해 받는다.

[어르신 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는 '어르신 문화학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파주문화원에서는 이제 3년차에 접어든 어르신 사물놀이 반을 2012년 처음 개강하여 계속 운영해 왔다. '파주어사'의 '어사'는 어르신 사물놀이의 줄임말이며,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관리라는 뜻도 있다. 말하자면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흥겨움과 복을 가져다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파주어사' 반 수강생들은 강의시간 외에도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연습에 매진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초청되어 많은 공연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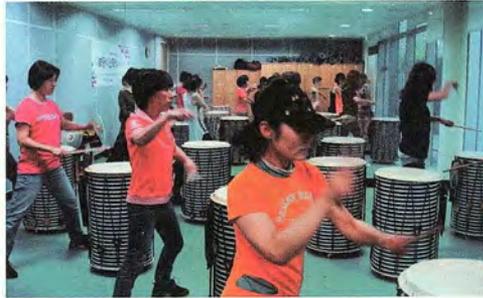
가야금 | 가야금 이론 및 연주



가죽공예 | 가죽을 이용한 악세서리 제작



냅킨아트
| 다양한 패턴의 냇킨을 오려붙여 나만의 소품 만들기



다이어트난타
| 타법과 다양한 리듬 익히며 생활의 활력과 자신감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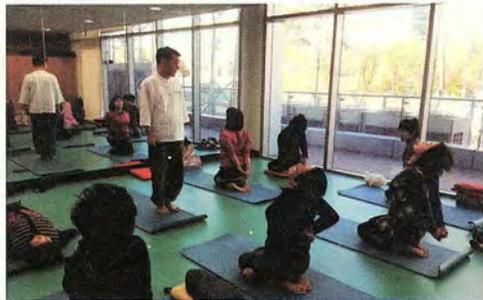
닥종이공예
| 전통한지 닥종이로 인형 만들기



단소 · 대금 | 단소, 대금 이론 및 연주



만화창작 | 만화기법 실습과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몸펴기생활운동 | 운동을 통한 몸의 자연치유력 강화



문예창작 | 시와 수필 감상과 습작지도



문인화 | 문인화(사군자) 이론 및 실기



민요가락장구 | 장구 연주와 경기민요 창법 익히기



민화 | 민화 채색기법 습득



사물놀이 | 사물놀이 연주 기초



사진 | 디지털 사진 이론과 실습



생활도예 | 나만의 스타일로 도자기 만들기



생활풍수 |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생활풍수 이론



서예 | 각 서체 이론과 실기



수채화 | 수채와 이론과 다양한 표현기법



어린이서예 | 붓글씨와 먹그림 그리기



여행중국어 | 여행에 필요한 중국어 기초회화



우쿨렐레 | 우쿨렐레 연주 이론 및 실기



유화 | 유화 이론과 표현기법



캐리커처
| 관찰을 통한 인물그리기, 특징을 살려 재미있게 표현하기



캘리생활공예
| 캘리그래피를 이용하여 다양한 생활용품 만들기



클래식기타 | 클래식기타 연주 이론 및 실기



테마한국사 | 내고장 이야기와 연계한 현장답사



토요미술교실 | 서양화(유화, 수채화) 이론과 실습



토요음악교실 | 바이올린 연주 이론 및 실기



퓨전떡케이크
| 전통떡에 장식을 더해 생활에 친숙한 건강간식 만들기



한국무용 | 한국무용 이론과 실기



뛰뛰빵빵! 주말버스학교

5월 ~ 11월 | 현장체험

파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파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뛰뛰빵빵! 주말버스 학교는 다양한 체험을 통한 현장학습으로 주말 돌봄 대상 및 맞벌이 가정의 교육부담 감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5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각각 '봄 꽃 찾아보기', '박물관 체험', '우주·천문체험', '통일안보체험', '농촌체험', '향교·서원체험', '세계문화탐방' 테마로 진행되었다. 각 회차에서는 허브 화분 꾸미기, 명랑운동회, 활·화살 만들기, 장단콩 두부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등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험 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켰다. 뛰뛰빵빵 주말버스학교는 학기 초, 각 학교에서 신청 및 추천을 받은 80여 명의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토유적답사

4월 ~ 11월 | 파주시 관내 향토유적지

향토유적답사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파주지역에 있는 역사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며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체험답사 프로그램이다. 관내 유적지에 방문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온 가족이 함께 재미있는 체험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총 여섯 차례 각각의 테마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향토문화체험답사'라는 큰 테마 아래 매달 '조선왕릉을 찾아서' (4. 12), '선사유적지답사' (5. 10), '파주의 불교유적' (6. 14), '파주3현 유적답사' (7. 12), '테마박물관 답사' (8. 9), '민통선유적답사' (9. 13), '파주의 유교유적' (10. 18), 조선시대 묘역답사(11. 8)가 진행되었다. 2015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파주 사람들뿐 아니라 신규 전입자들이나 외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파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발과 잠재적 관광객화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생학습관 : 전통문화체험학교

7월 28일, 8월 14일 | 영집공사박물관, 단샘 다례원

전통문화체험학교 경기도 평생학습관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전통예절과 활·화살 만들기, 전통 연(鸞) 만들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정서함양과 세대 간 문화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80명을 모집하여 각 40명씩 2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영집공사박물관(관장 유영기)에서 전통 활·화살 만들기, 활쏘기 체험, 단샘다례원에서 전통다도법과 공수법 등 전통예절을 몸에 익히며 우리 조상의 멋과 슬기를 배우고 돌아갔다.



평생학습관 : 문화유산해설사 파견

연간 | 파주시 관내

문화유산해설사 파견은 경기도 평생학습관 사업의 일환(사업명 내고장 바로알기)으로, 전문강사인 파주 문화유산해설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과 향토문화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15회(6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파주문화원 소속 문화유산해설사는 2005년 파주시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1~2기 20명)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들은 양성과정 수료 전부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문화유적답사반에서 3~4년간 문화유적에 대한 이론과 지역문화유적답사를 통해 폭넓은 역사공부를 해 온 전문가들이다.

주5일제 근무의 정착과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단지, 영어마을 조성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문화유산해설사의 수요가 점점 많아져, 이 같은 문화유산해설사 파견사업은 파주문화를 잘 알리는 가이드로써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제47회 창립기념식 및 제14기 문화학교 수료식

12월 19일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파주문화원 제47회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4기 문화학교 수료식이 각계 내빈과 문화가족 300여 명, 파주문화학교 수강생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임미옥 파주문화원 부원장, 황인석, 이윤희, 이승중 파주문화원 이사 등 유공자들에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문화학교 우수 강사 및 우수 수료자 30여 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되었다.

기념식에 앞선 축하공연으로는 문화학교 다이어트 난타반 동아리 컬러(COLOR)팀의 웅장한 난타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 기념식 2부 문화학교 수료 발표회에서는 어르신 사물놀이, 다이어트 난타, 가야금, 민요 가락장구, 우쿨렐레, 바이올린 등 수료생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10월 17일 |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격년으로 성인(홀수연도)과 청소년(짝수연도)이 번갈아 진행되는 경기도의 민속예술 마당이다.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 보존을 위해 대표적인 청소년 민속축제로, 경기도 의정부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 각 시·군에서 지역의 풍습과 정서를 담은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풍물 등의 대표 민속예술 공연 축제로 경연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전국대회인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경기도 25개 시·군 청소년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경연 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경연자인 청소년과 관객이 즐길 거리가 풍성했다. 개막식에는 '동방의 빛,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로 의정부시립무용단과 퓨전엠씨가 남노소 누구나 흥겨워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펼쳤고, 폐막식에서는 의정부시 미숙무용단,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경기북부지부 등이 합동 공연하는 '풍물악놀이'로 경연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파주시 대표로는 파주청소년예술단이 참가하여 '교하기세울농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며 파주 교하지역의 농악을 널리 알렸다.



우수전통 민속보존 지원사업

연간 | 문산제일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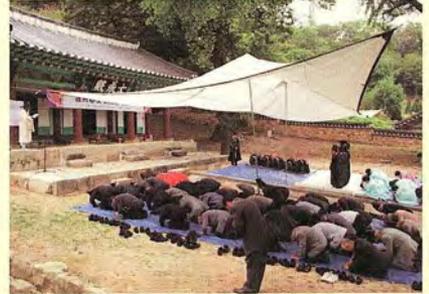
파주시 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을 보전, 전승함은 물론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문화원에서는 매년 우수전통민속보존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문산제일고등학교 풍물반(10명) 활동으로, 지속적인 전통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풍물반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연대회 및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문화의 가치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교문화행사 지원

연간 각 향교, 서원

제향 지원 조선왕릉과 향교·서원, 그리고 지역의 선현을 모신 유림제단에서는 1년에 1~2차례씩 제례를 봉행한다. 왕릉에서는 제왕이나 왕후의 기일에 기신제(忌辰祭)를 지내고, 향교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큰 덕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지낸다. 서원 등에서는 각기 모시고 있는 인물을 추모하는 제례가 봄, 가을로 봉행되고 있다.



적성향교

일시 : 9. 3(음력 8. 10), 11:00
 장소 : 적성향교 대성전
 거안 : 초헌관 이재홍(파주시장)
 아헌관 권영식(적성향교 장의)
 중헌관 정구채(적성향교 장의)
 참여인원 : 75명

교하향교

일시 : 9. 3, 10:00
 장소 : 교하향교 대성전
 거안 : 초헌관 박재진(파주시의회 의장)
 아헌관 정호진(금촌초등학교 교장)
 중헌관 음두봉(교하향교 유도회장)
 참여인원 : 300명

파주향교

일시 : 9. 28, 11:00
 장소 : 파주향교 대성전
 거안 : 초헌관 이재홍(파주시장)
 아헌관 김용성(옹주서원장)
 중헌관 신섭균(파주향교 장의)
 참여인원 : 200명



용주서원

일시 : 10. 2(음력 9. 9) 11:00
 장소 : 용주서원
 거안 : 초헌관 이재홍(파주시장)
 아헌관 류병기(자운서원장)
 종헌관 이성렬(신림조합장)
 참여인원 : 120명



자운서원

일시 : 4. 6(음력 3. 초정일), 11:00
 장소 : 자운서원 문성사
 거안 : 초헌관 황의록(자운서원 고문)
 아헌관 이철용(덕수이씨 찬성공파중회 회장)
 종헌관 류원석(방촌선생봉사회 도유사)
 참여인원 : 130명



파산서원, 경현단

일시 : 3. 17, 10:30
 장소 : 파산서원 사당
 거안 : - 파산서원 제향
 초헌관 우관재(문화원장)
 아헌관 이영복(우계 도유사)
 종헌관 신섭균(파산서원 장의)
 - 경현단 제향
 초헌관 김용성(용주서원장)
 이삼희(성서영묘 도유사)
 이기철(파주향교 장의)
 참여인원 : 125명



공릉

일시 : 10. 19, 12:00

장소 : 공릉

거안 : 초헌관 이재홍(파주시장)
 아헌관 한도영(청주한씨문열공종중이사)
 종헌관 이석우(전성군 손)

참여인원 : 280명



영릉

일시 : 9. 13, 11:30

장소 : 영릉

거안 : 초헌관 이기완(부분원장)
 아헌관 조동성(풍양조씨 풍양군파 부회장)
 종헌관 이수걸(파주시분원 강사)

참여인원 : 750명

소령원

일시 : 4. 23, 11:30

장소 : 소령원

거안 : 초헌관 이성열(산림조합장)
 아헌관 이재홍(파주시장 후보)
 종헌관 이윤호(전주이씨 조리음분회장)

참여인원 : 200명



성사영묘

일시 : 9. 20, 11:00
 장소 : 성사영묘
 거안 : 초헌관 김정규(전 파산서원장)
 아헌관 김용성(웅주서원장)
 종헌관 이규형
 참여인원 : 60명

월계단

일시 : 4. 29(음력 4. 1), 11:00
 장소 : 월계단
 거안 : 초헌관 김진희(월계단 전도유사)
 아헌관 김영규(종중회장)
 종헌관 성기만(파주문화원 이사)
 참여인원 : 80명

동헌단

일시 : 9. 23, 11:00
 장소 : 동헌단
 거안 : 초헌관 남창우(법원음장)
 아헌관 이영복(우계사당 도유사)
 종헌관 이삼희(성사영묘 도유사)
 참여인원 : 60명

여충사

일시 : 4. 9, 11:00
 장소 : 여충사
 거안 : 초헌관 우관제(파주문화원장)
 아헌관 정경진(교하향교 전교)
 종헌관 이승중(여충사 장의)
 참여인원 :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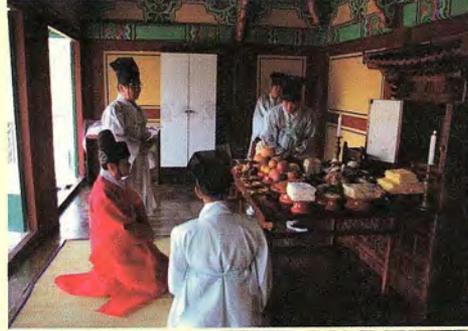
방촌영정각

일시 : 9. 1(음력 8. 8), 11시

장소 : 방촌선생 영정각

거인 : 초헌관 박태수(파주부시장)
 아헌관 신낙범(유림총연합회장)
 종헌관 김용성(용주서원장)

참여인원 : 145명



우계사당

일시 : 4. 20, 11:00

장소 : 우계사당

거인 : 초헌관 우관제(파주문화원장)
 아헌관 신낙범(파주유림총연합회장)
 종헌관 이상해(성시영묘 도유사)

참여인원 : 200명

【 기로연(耆老宴) 기로연은 원래 조선시대 때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베푼 잔치이다. 우리 지역 향교에서도 유교 이념의 실천을 위하여 유림의 원로 및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매년 기로연을 실시하고 있다 】



無病長壽 | 氣力強家 | 讀書無疆
元 4347年 交河鄉校 敬老宴(耆老宴)
2014年 9月 3日(水)陰曆八月十日 11:30 〇後院:坡州市 坡州文化院 〇講所:交河鄉校 禮堂



교하향교

일시 : 9. 3
장소 : 교하향교 교궁
빈로 : 백유현, 윤상섭, 채이병
참여인원 : 200명



慶 · 祝 敬老孝親 傳統文化 耆老宴



적석향교

일시 : 10. 29
장소 : 적성 현대식당
빈로 : 백영렬, 최주택
참여인원 : 120명



坡州鄉校 傳統文化 耆老宴 行事
孔配 2565年 11月 12日 場所: 儒林會館 禮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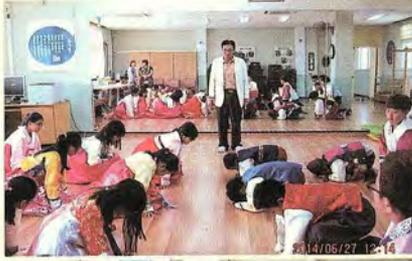
파주향교

일시 : 11. 12
장소 : 교하향교 유림회관 2층
빈로 : 황의록, 윤성구, 박천신
참여인원 : 1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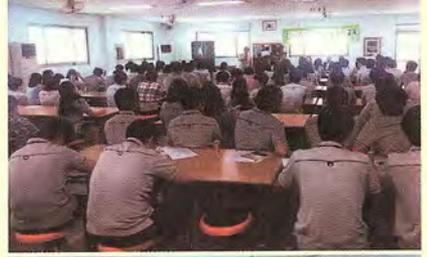
충효도의(忠孝道義) 선양교육 유림 단체에서는 유교이념의 올바른 전승과 현대문화와의 소통을 위해서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도의 선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파주향교
 일시: 4월~10월
 장소: 파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참여인원: 학생, 군인, 일반인 750명
 강사: 이선민, 양재일, 이찬호, 오정호



교하향교
 일시: 3월~7월
 장소: 교궁 및 학교 예절실
 참여인원: 금촌2동 주민자치 위원회 및 자녀(3,29)
 금촌중학교(5,28)
 문산초등학교(6, 23, 25, 27, 7, 3) 300명
 강사: 정경진, 음두봉, 황해연, 배은경, 문영임



적성향교
 일시: 7. 16
 장소: 삼광중학교
 참여인원: 삼광중학교 3학년 학생 107명
 강사: 정경진

파주문화광장

- 제32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 제19회 파주 시민·학생 문예작품 공모전
- 제22회 파주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 제12회 어린이 책잔치
- 제7회 전국시조경창대회
- 제2회 파주청소년연극제
- 제16회 파주예술제 : 藝香 속으로 - 예술아 놀자
- 2014 환경도예가회 특별전 - 한일도예교류전
- 제4회 파주포크페스티벌(PAFF)
- 2014 파주 헤이리 아트 페스티벌
- 제5회 평화사랑가족연극제
- 파주 우리소리 전국 국악(실버) 대제전
- 전국율곡서예대전
- 파주북소리 2014
- 제5회 파주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 제27회 율곡문화제
- 레벨스크 시 예술학교&파주청소년교향악단 합동연주회
- 제10회 파주개성인삼축제
- 제18회 파주장단공축제
- 제5회 파주평생학습박람회
- 제19회 파주서예대전
- 2014 찾아가는 미술제 한·중 국제교류전
- 제23회 경기연극올림피아드 대상작 '싱싱냉장고' 공연
- 파주시민을 위한 국악콘서트 호연에 반하다
- 2014 임진각제야행사
- 2014 파주시립예술단 공연
- 2014 교하아트센터 전시

파주문화광장



제32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일시 : 4. 4(대회기간 3.19~4.6)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 :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주관 :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

전국 단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연극제는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지역 연극의 상호 교류를 통해 도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에 부응하고자 개최되었다. 경기도대회에는 경기도 일원에서 활동하는 19개 프로 극단이 각시, 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데, 파주의 대표 연극단체인 파주연극협회가 <해가 지면 달이 뜨고>(김태수 작, 장은정 연출)를 공연하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19회 파주 시민·학생 문예작품 공모전

일시 : 공모기간 5. 1~30, 시상식 7. 12
 장소 :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
 주최·주관 : 한국문인협회 파주지부
 후원 : 파주시

파주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문예작품 공모전은 시민과 학생들의 문예창작 의욕과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참신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공모전 입상작은 수상작품집에 수록된다.

제22회 파주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일시 : 6. 18~19
 장소 :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주최 : 파주시
 주관 : 금촌청소년문화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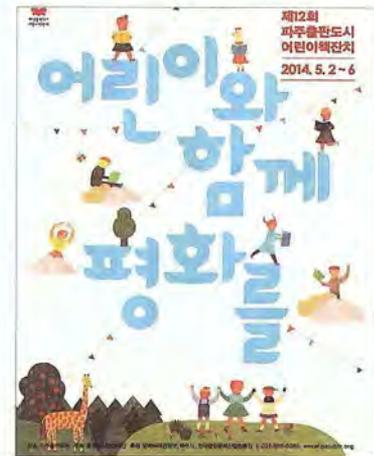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기량을 겨루는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문화체험 기회와 놀이문화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적 감성개발을 통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예술제는 초, 중, 고교생별로 공모분야(시, 산문)와 경연분야(한국음악, 한국무용, 현대무용, 대중음악, 댄스 등)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분야 최우수 수상자는 9월에 펼쳐지는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더 넓은 무대에서 경연할 수 있게 된다.



제12회 어린이 책잔치

일시 : 6. 19~22
 장소 : 파주출판도시 내
 주최·주관 : 출판도시문화재단

12번째 생일을 맞은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가 '어린이와 함께 평화를'이라는 테마로 개최되었다. 평화를 테마로 한 특별전시 '평화는 따뜻해요'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텐트영화제', 백일장과 미술제, 그리고 출판사 오픈하우스, 출판도시 견학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린이 책 놀이터를 만들었다.



제7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일시 : 6. 28
 장소 :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주최 : 대한시조협회 파주지회
 후원 : 파주시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선생의 정신을 본받고 기리는 전국시조경창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시조협회 파주지부는 시조창의 부흥과 보급, 그리고 전국 시조인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자 본 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연대회와 더불어 명창들의 시조 발표회도 함께하여 시민들에게 시조를 가까이하며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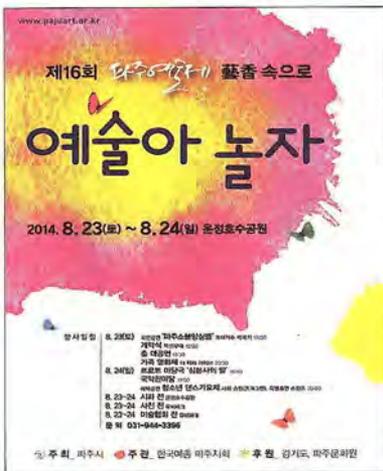




제2회 파주청소년연극제

일시 : 7. 19
 장소 : 교하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
 주최 : 파주시
 주관 : 교하청소년문화의집

파주청소년연극제에서는 파주시 관내의 교하고, 파주고, 동패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연극적 재능을 선보였다. 작품은 <낙하산>, <사춘기메들리>, <아름다운 시인> 등 모두 세 작품을 선보였다. 무료 연극공연 외에도 다양한 체험부스를 함께 진행해,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제16회 파주예술제 : 藝香 속으로-예술아 놀자

일시 : 8. 23~24
 장소 : 문정호수공원 특설무대, 유비파크
 주최 : 파주시
 주관 : 한국예총 파주지회

파주예술제는 지역의 예술발전과 시민과의 어울림, 나눔을 위해 매년 펼쳐지는 파주의 대표 종합예술제이다. 한국예총 파주지회 산하 국악, 무용, 문인, 연극, 연예, 음악, 영화, 사진 등 9개 장르 예술단체의 회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제16회 파주예술제는 ‘藝香 속으로-예술아 놀자’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다. 춤 대공연, 가족연극제, 국악한마당, 청소년 댄스가요제, 시화전, 사진전, 미술협회 회원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연을 펼쳤다.



2014 환경도예가회 특별전 - 한일도예교류전

일시 : 8. 23~9. 16
 장소 : 헤이리 예술마을 내 갤러리 이레, 갤러리 퍼즈
 주최·주관 : 환경도예가회

환경도예가회는 ‘환경도예’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고자 한 모임으로, 1987년 창립전을 개최하며 발족하였다. 환경도예가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환경을 주제로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

도하고, 현대도예의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여 관객과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2014 환경도예가회 특별전-한일도예교류전에는 한국작가 33명과 일본작가 23명이 참여하여 작품과 관객의 교류를 돕는 환경작품을 선보였다.

제4회 파주포크페스티벌(PAFF)

일시 : 9. 13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주최 : 파주시
 주관 : 경기관광공사, JOY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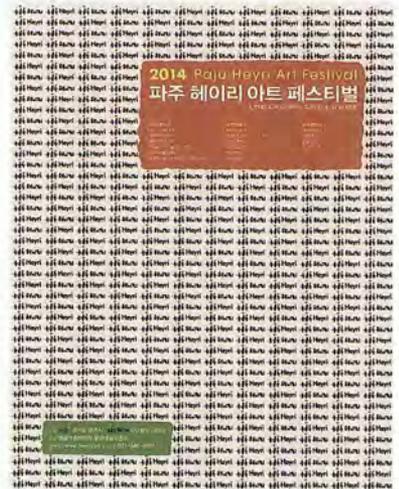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한 파주포크페스티벌이 4회째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문화예술축제로 더욱 성장해 갈 발판을 다졌다. 약 1만 5천여 명의 관객 속에서 진행된 페스티벌에는, 한국 포크음악의 전설 이장희와 국민가수 김장훈, 파주 출신의 윤도현이 이끄는 YB밴드, 유리상자, 멀리 스웨덴에서 날아온 안드레아 샌드런드 등 국내외 14팀의 포크뮤지션들이 출연하여 세대 초월 포크 음악으로 가을밤을 물들였다. 또 재야의 고수들이 참여하는 '파주포크 송콘테스트'에서는 흥대 인디씬에서 활약하고 있는 실력과 신세대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대한민국 '케이 포크'의 미래를 예고했다.



2014 파주 헤이리 아트 페스티벌

일시 : 9. 20~28
 장소 : 헤이리 예술마을 내
 주최 : 파주시, 사단법인 헤이리
 주관 : 예술마을 헤이리 문화예술위원회

헤이리 아트페스티벌은 경기도 최초의 문화지구인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개최되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헤이리 내 17개의 갤러리가 참여해 회화, 설치, 조각, 공예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갤러리 연합전'을 펼치며, 작가들의 공간을 무료 개방하는 '헤이리 오픈스튜디오'가 진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프린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예술행사가 펼쳐졌다. 이외에도 헤이리의 모든 작가들이 참여하는 헤이리 작가전, 예술마을 내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각종 행사도 마련되었다.





제5회 평화사랑가족연극제

일시 : 10. 2~4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 : 한국연극협회 파주시부
 주관 : 한국연극협회 파주시부, 극단 예성

한국연극협회 파주시부(지부장 박재운)에서는 지역 연극 활동의 다양성을 실천하며 창조성을 자극, 연극종사자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용, 연극 꿈나무들의 재능개발을 목표로 활발한 연극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화, 사랑, 가족의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된 연극제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연극, 마당극, 뮤지컬, 인형극, 닌버벌, 마임극 등 공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였다. 극단 예성, 파랑새, 슬이홀 등 6개의 극단이 참여하였고, <참새와 허수아비>, <모기>, <찰리아저씨 매직콘서트>, <심봉사의 딸>, <환타지 OZ>, <달가와 마노의 보이는 라디오> 등 6개의 작품이 시연되었다.

파주 우리소리 전국 국악(실버) 대제전

일시 : 10. 4
 장소 :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주최·주관 : 우리소리보존회 파주시부
 후원 : 파주시, 파주문화원 등

우리소리 전국 국악대전은 소외되어가는 우리 전통 국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전통문화 예술인을 발굴하고 실버 국악인들에게 경연대회를 통한 자신감 성취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실시되고 있다. 경연부문은 민요(판소리, 시조, 경기민요, 서도민요, 토속민요, 통속민요, 각 지방 민요), 기악, 사물놀이(개인, 단체), 한국무용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전국율곡서예대전

일시 : 10. 4~9
 장소 : 문산행복센터 전시실
 주최 :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파주지부
 주관 : 전국율곡서예대전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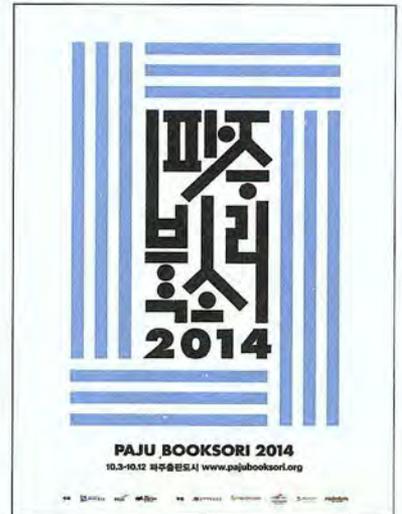
조선시대 대학자이자 명필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 서예계를 빛낼 참신한 신인들을 발굴하고자 전국 서예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18회 전국율곡서예대전이 개최되었다. 전국율곡서예대전은 매년 율곡문화제를 기념하여 치러지고 있다.



파주북소리 2014

일시 : 10. 3~12
 장소 : 파주출판단지 일원
 주최 : 경기도, 파주시, 파주북소리 조직위원회

파주북소리는 3회째 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반열에 올라섰다. 2014년 축제에서는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수십 명의 세계 문인, 석학들이 우리 독자와 함께하기 위해 파주북소리를 찾았고, 일본의 문화예술인들은 자발적으로 북소리 참관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독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대중 참여 프로그램에는 기존의 독서모임 한마당, 글짓기 한마당에 이어, 문학열차, 책방거리 퍼레이드, 기부와 나눔을 특징으로 하는 트윅북 북 레인 등이 추가되었다. 출판도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식난장은 단장을 마친 광인사길 책방거리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제5회 파주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일시 : 10. 11
 장소 : 문산행복센터
 주최 : 한국예총 파주지부
 주관 : 한국국악협회 파주지부

민중의 심성과 정서가 배어 있는 경기도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경기민요를 누구나 사랑하고 애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명창배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경연부문은 경기 및 서도 민요와 향토민요(개인, 단체), 기악, 무용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제27회 울곡문화제

일시 : 10. 11~12
 장소 : 파주이이유적지, 법원을 일원
 주최 : 파주시
 주관 : 파주문화원

울곡 선생을 추앙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선현들의 삶의 지혜를 되새기는 제27회 울곡문화제가 개최되었다. 행사 첫날에는 울곡선생 추모 제례와, 울곡선생의 구도장원을 기리기 위해 과거에 급제한 후 귀향하는 모습을 재연한 유가 행렬 및 시민길놀이 행렬이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또 전국 한시백일장, 트로트 마당극, 서원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승경도 놀이, 민속놀이 체험 등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이어졌다. 또한 고지도를 통해 파주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고지도展과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展 등 작은 전시회도 함께 열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레벨스크 시 예술학교&파주청소년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일시 : 10. 18
 장소 : 윤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 · 주관 : 파주시청소년교향악단
 후원 : 파주시 등

러시아 레벨스크 시 예술학교 학생들과 파주시청소년교향악단(단장 윤희정)의 협연이 펼쳐졌다. 희망을 꿈꾸는 두 도시의 청소년들의 협연은 모두의 마음이 담긴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연주회에 앞서 레벨스크 시 시장은 러시아와 파주시의 음악적 교류에 앞장서 온 윤희정 단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제10회 파주개성인삼축제

일시 : 10. 18~19
 장소 : 임진각 광장
 주최 : 파주시
 주관 : 파주개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 김포파주인삼농협

고려 인삼의 명맥을 잇는 파주개성인삼은 항암효과가 뛰어난 사포닌 함량이 높은 우리지역 대표 특산품이다. 파주개성인삼을 관광자원화한 파주의 대표 지역축제인 파주개성인삼축제에서는 특히 6년근 명품 인삼을 홍보 및 판매하여 지역 농산품을 널리 알렸다, 또한 인삼 캐기, 인삼맥주와 인삼주 시음회, 인삼우유 마시기 대회, 전통인삼차 시음 등 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바이어 30여 명과 인삼 50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다시 한 번 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인 축제로 평가받았다.



제18회 파주장단콩축제

일시 : 11. 21~23
 장소 : 임진각 광장
 주최 : 파주시
 주관 : 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 NH농협 파주시지부

파주 임진강 쌀, 파주개성인삼과 함께 장단삼백이라 하여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파주장단콩은, 장단지역에서 생산되는 파주의 특산품이다. 특히 2014년에는 파주장단콩이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농림축산식품부)에서 2년 연속 수상한 것을 기념해 20~30% 저렴하게 판매해 성황을 이루었다. 식전행사로 길놀이 행사, 전통 매주만들기, 제19회 농업인의 날 행사, 장단콩 OX퀴즈 등이 진행되었고, 제7회 파주장단콩요리 전국대회, 제3회 파주장단콩주부가요대전, 2014명분의 '비빔밥 나누기 시식회', 힘이 가장 센 사람을 뽑는 '장단콩 힘자랑 대회', 장단콩 관련 '전시마당', '농특산물 판매마당' 등이 함께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있었다.





제5회 파주평생학습박람회

일시 : 9. 19~20
 장소 : 문산행복센터
 주최 : 파주시
 주관 : 파주평생학습박람회운영위원회

파주평생학습박람회는 '희망도시 파주! 평생학습으로 시작합니다'를 슬로건으로 파주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고 직접 체험하는 장을 마련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평생 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또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다양한 발표회와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제19회 파주서예대전

일시 : 10. 27~31
 장소 :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
 주최·주관 :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지부
 후원 :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지부(지부장 조용호)가 매년 개최하는 파주서예대전은 지역의 서예인 발굴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제19회 공모전에는 200여점에 이르는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파주시의 후원으로 치러지며, 파주의 서예문화를 알리고 선현들의 예술을 전승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2014 찾아가는 미술제 한·중 국제교류전

일시 : 11. 5~11
 장소 : 운정호수공원 내 유비파크
 주최·주관 : 한국미술협회 파주시부
 후원 : 파주문화원

한국미술협회 파주시부 소속의 국내 작가 60여 명과 중국 복건성 회안 조각예술연구회 소속 중국 작가 20여 명이 함께 참가하는 국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작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 개막행사에서는 행위예술과 즉석 서예퍼포먼스가 진행되어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파주 미술협회는 이번 국제교류전과 다양한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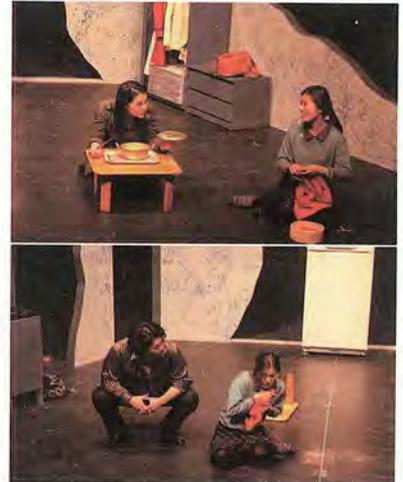


활동을 통해 파주 미술의 역량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23회 경기연극올림피아드 대상작 '싱싱냉장고' 공연

일시 : 11. 11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 :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주관 :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

제23회 경기연극올림피아드는 경기도 각 시군의 아마추어 연극단체들의 기량을 경연하는 자리로, 지역 연극 활성화와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안성시에서 개최되었다. 파주에서는 극단 술이홀이 연극 '싱싱냉장고' (김숙중 작, 장은정 연출)로 참가하여 단체부문 대상, 무대예술상과 개인부문 우수연기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연극협회 파주지부에서는 '싱싱냉장고'의 수상을 기념하고 파주 연극 저변확대와 발전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파주시민들에게 무료공연을 선보였다.



파주시민을 위한 국악콘서트 호연에 반하다

일시 : 12. 12
장소 :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 전통예술단 호연
후원 : 파주시, 파주농악보존회 등

국악공연 〈호연에 반하다〉는 파주의 대표 전통예술단 호연의 신나는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호연은 전통음악 무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요즘, 민속음악을 가지고 연희, 기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 젊은 국악인들로 이루어진 전통예술단이다. 국악콘서트는 호연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로, 우리 민족 고유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퓨전 국악공연을 통해 민속음악을 함께 즐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4 임진각제야행사

일시 : 2014. 12. 31~2015. 1. 1

장소 : 임진각 평화의 종각

주최 : 경기도, 파주시

주관 : 경기문화재단

분단과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임진각 '평화의 종' 타종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야의 종 타종식에 앞서 평화의 종각에서는 퓨전국악, 뮤지컬 갈라, 클래식 등 다채로운 식전공연이 펼쳐졌고, MBC가 주관하는 <2014 가요대제전>과 함께 전국에 이원 생중계되었다.

2014 파주시립예술단 공연

소재지 :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지하1층

창단일 : 1997

파주시 시립예술단은 파주시 어머니예술단을 모태로 여성예술단과 시립예술단을 거쳐 2012년 9월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파주시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났다. 정기연주회 및 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늘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 특히 창작 오페라, 뮤지컬 공연은 물론 정통 클래식 음악 또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번호	공연명	일시	장소
1	2014 신년음악회	1.25	운정행복센터
2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 사랑하면 춤을 춰라	2.13~14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3	솔가람아트홀 개관기념공연 I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독주회	3.8	솔가람아트홀
4	솔가람아트홀 개관기념공연 II 피아니스트 조재혁 독주회	3.15	솔가람아트홀
5	솔가람아트홀 개관기념공연 III 첼리스트 송영훈 독주회	3.22	솔가람아트홀
6	솔가람아트홀 개관기념공연 IV 파주시시립예술단 합창 및 오케스트라	3.29	솔가람아트홀
7	토이콘서트	5.5~6	파주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8	마티네 콘서트 : 로맨틱 클래식	7.16	솔가람아트홀
9	시민화합 대음악회	7.19	운정행복센터
10	금요일 밤의 클래식	7.25	솔가람아트홀
11	마티네 콘서트 : 시원한 클래식	8.13	솔가람아트홀
12	단원콘서트 : 한 여름속의 환타지	8.29	솔가람아트홀
13	마티네 콘서트 : 브라이언크레인 힐링콘서트	9.17	솔가람아트홀
14	단원콘서트 : 이야기가 흐르는 콘서트	9.26	솔가람아트홀
15	어린이 희망음악회	9.27	솔가람아트홀
16	주부뮤지컬 맘미아	9.28	운정행복센터
17	찾아가는 음악회	10월	운정초등학교, 문산북중학교, 파평도서관
18	단원콘서트 : 뮤지컬 갈라콘서트	10.24	문산행복센터
19	찾아가는 음악회	11월	탄현작은도서관, 진인선원, 연세요양센터
20	단원콘서트 : 가곡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11.28	솔가람아트홀
21	주부뮤지컬 맘미아 앙콜공연	11.30	문산행복센터
22	뮤지컬 그리스	12.12, 16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23	2014 송년음악회	12.19, 26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2014 교하아트센터 전시

소재지 :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 교하도서관 3층

개관일 : 2008. 9

교하아트센터는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전시 공간이다. 교하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획전은 물론 전시를 원하는 일반 시민과 작가들의 단체 및 개인전 등 다양한 전시가 가능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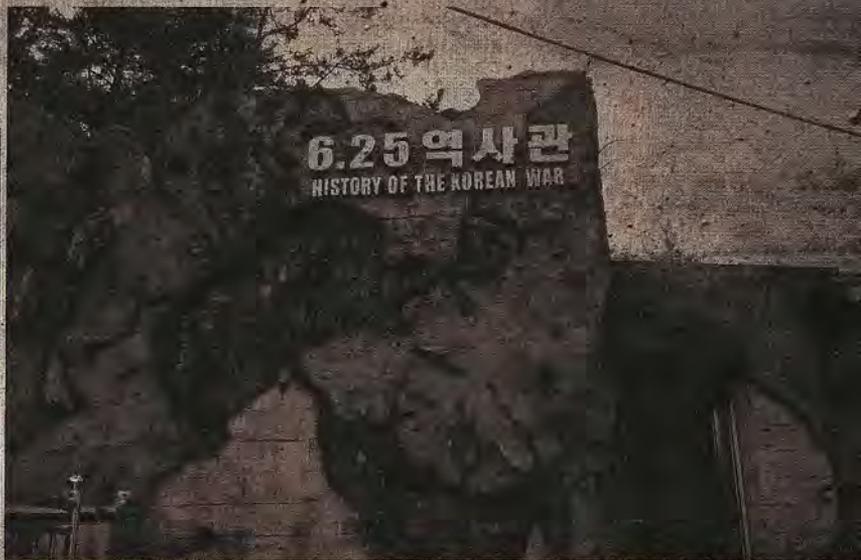
번호	전시명	기간
1	기획전 : 美색美선 그리고 즐거움展	1.2~15
2	다시, 햇살을 비추다展 1부	1.16~22
3	다시, 햇살을 비추다展 2부	1.23~29
4	수정유차원 졸업작품전시회	2.2~11
5	이상완 개인전	2.12~19
6	정은숙 개인전	2.20~3.9
7	파고(PAGO)展	3.11~18
8	파주미술협회 한국화분과展	3.18~25
9	정애경 개인전	3.26~4.3
10	빛깔과 향기展	4.11~17
11	붓뜰리에展	4.18~24
12	파주미술협회 서양화분과展	4.25~5.1
13	오채현展	5.2~11
14	이영숙 개인전	5.13~19
15	제11회 숲이홀 樂 새김전	5.20~27
16	화인회展	5.28~6.3
17	인·선展	6.4~11
18	캔버스 스토리	6.11~17
19	호룡회展	6.18~24
20	파주미술협회 조각분과展	6.25~7.1
21	기획전 : 하하 호호 히히展	7.2~8
22	유쾌한展	7.9~15
23	기획전 : 바스락바스락 예술놀이展	7.16~22
24	파스텔展	7.23~30
25	최향숙 개인전	7.30~8.5
26	임계임 개인전	8.6~12
27	기획전 : 바스락바스락 예술놀이展	8.13~19
28	윤은진 개인전	8.20~8.26
29	봉일천고등학교 미술영재반 작품전	8.27~9.2
30	환경미술협회展	9.10~9.16
31	그림이 좋다 '도깨비展'	9.24~28
32	성연정展	9.29~10.7
33	파주교육지원청 중·고등부 미술전시회	10.8~14
34	빛담展 : 파주 프로젝트 2014+꿈꾸는 행복한 카메라	10.15~28
35	파주미술협회 서예분과展	10.29~11.4
36	한·중 현대미술교류展	11.5~11
37	규방별곡, 4인4색展	11.12~18
38	노재홍 개인전	11.19~25
39	임진강展	11.26~12.2
40	파주미술인회展	12.3~9

거제포로수용소에서 아버지를 만나다

자동차를 타고 바다 위를 달려간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도 육지와 섬을 잇는 연륙교를 놓아 언제든지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문화의 도시로 발전했다. 거제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포로수용소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에 전쟁을 겪었고 전쟁 중에 늘어난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포로수용소가 필요했다. 적절한 후보지로 거제도가 선택된 것은 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 최소의 인력으로 포로관리가 수월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물 공급이 가능하며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거제도는 바람의 언덕, 해금강, 외도, 몽돌해변 등 가볼 만한 곳이 많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고초를 겪었던 포로수용소를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다.

파주는 전쟁이 일어난 그날로 적의 손에 들어갔고, 10월 1일 유엔군이 진격해 올 때까지 96일간을 인민군 점령하에 있었다. 전쟁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된다. 일반인도 전쟁의 불길은 피해갈 수 없었다. 아버지는 갓 결혼해 첫아들 낳고 농사지으며 평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인민군에게 발목이 잡혔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의 젊은이들은 의용군(義勇軍)이란 이름으로 끌려 나갔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북쪽으로 가자면 물이 깊지 않은 고랑포를 건너야 하는데 임진강 주변에 폭격이 심해지자 인민군은 끌고 가던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도망가는 일이 허다했다. 파평면 두포리에서도 백여 명이 총살당했고, 적성면 김악산 아래서도 후퇴하면서 동네 이장이나 공무원 등 서른세 명의 민간인을 사살했다.

아버지는 북으로, 북으로 몇 날 며칠을 끌려갔다. 수십 명을 포승줄에 묶어 끌고 가던 인민군은 전세가 기울었다는 걸 알았는지, 맨 앞에 선 여자와 맨 뒤에 선 아버지만 남기고 모두 총살을 시켰다. 그들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처자식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꾀



를 부렸다. 평소에 나무를 잘 타던 아버지는 "배가 아파 불일을 보고 가겠다"며 숲으로 들어가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자 인민군이 달려와 사방에다 총을 갈기며 찾다가 포기하고 돌아갔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향을 찾아갔으나 피난을 떠나 마을은 비어 있었다. 시오리를 더 걸어 법원리 가재울 외갓집 동네 들머리에서 연합군을 만났다. 인민군으로 착각한 국군은 그 자리에서 "싸 죽어라"며 총부리를 들어댔는데, 곁에 있던 미군이 안 된다고 한사코 가로막아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보내졌다.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철조망에 갇힌 아버지는 반공포로였다. 한 구역 내에서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들 사이에 서서히 편갈림이 생기고 양자 간의 대립이 발생해 구실과 기회만 있으면 습격해 난투극이 벌어졌다. 친공포로들은 사소한 일로도 시위와 난동을 부렸고 경비병의 순찰이 없는 밤에는 살인 구타가 이어져 희생자가 잇달았다. 각 막사에서 반공포로들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형식적으로 인민재판을 한 후 즉석에서 살해한 인원은 무려 삼백여 명에 달했다. 돌이나 도끼, 곤봉, 창, 칼로 잔인하게 죽여서는 변소나 막사 주변 웅덩이에 암매장하거나 철조망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한국군 경비 책임자나 감시병들의 분노는 말할 수 없었지만, 포로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고 경비담당에 지나지 않아 포로를 제약할 수 있는 방도가 달리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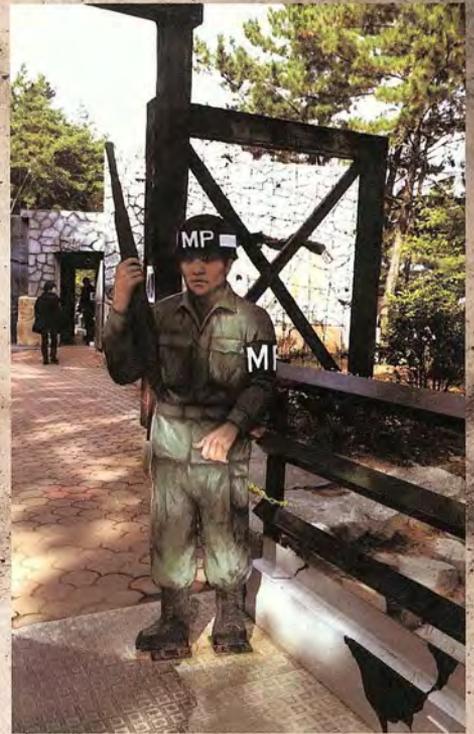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1952년 가을이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지아버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피난살이 움막생활이지만 사지에서 돌아와 가족이 함께한 작은 공간은 대궐 부럽지 않았으리라. 제

발 살아서 돌아오라.'고 아침저녁 청화수 떠놓고 빌고 빈 정성이 하늘에 닿았을까. 위급한 상황 목신(木神)이 도와주었고 발길마다 천지신명이 도와 죽을 고비를 넘긴 거라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하루에도 몇 명씩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포로수용소에서 아버지가 무사히 살아 돌아왔기에 나는 이 세상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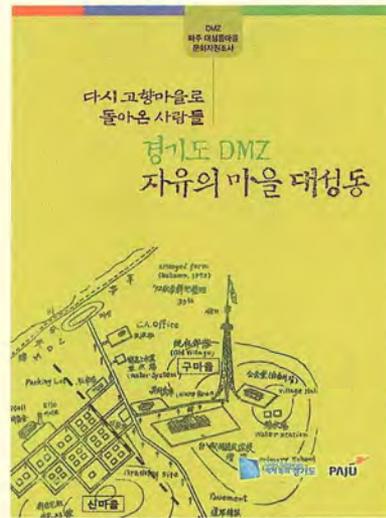
어디쯤일까. 포로수용소 생활관 앞에서 아버지의 발자국을 찾느라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아버지는 당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아군에게 잡혀가 생지옥 같은 포로생활을 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총자루 한 번 잡지 못하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아픈 상처가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일 년 남짓한 포로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동네 분들이 남쪽으로 꽃구경 갈 때도 아버지는 "남쪽은 바라보기도 싫다"며 가지 않으셨다. 동족상잔의 아버지 세대는 흘러가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거제도 포로수용소, 포로와 포로를 경비하는 부대병력이 합쳐져 십칠만이 넘는 인파를 수용하느라 온통 천막으로 뒤덮였던 벌판은 변화한 도시로 변했고, 수용소 자리에 조성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관람객이 줄을 잇는 명소가 되었다.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전쟁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 6·25 역사관에 서는 그 당시 전투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다. 조국을 위해 포화 속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용사들은 전쟁영화를 보듯 구경하는 관람객을 향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잊혀진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절규한다.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산 교육장에서 나는 오늘, 이 세상에 안 계신 아버지를 만나 참혹했던 이야기를 다시 듣는다.

강근숙



파주의 책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세계에서 유일한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의 역사와 환경, 세시풍속, 마을주민의 활동상 등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조사한 보고서.

보고서는 '대성동의 마을 환경과 역사', '자유의 마을 대성동의 형성',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등 10장으로 구분, 500여 쪽으로 제작됐으며 부록으로 대성동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담았다.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에는 특수한 상황과 각종 통제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자원 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과 조선시대 강릉 김씨 동원군파 묘역 등 문화유적이 상당수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기계화 이전의 농기구가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보전되어 있어 옛 선현들의 농경생활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사람들의 세시풍속과 놀이, 일상의례 등 무형문화자원도 보고서에 수록하고 있다.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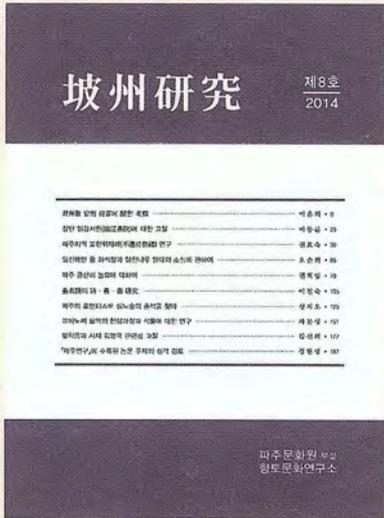


방촌 황희 평전

명재상이며 청백리의 표상인 방촌 황희의 정승의 생애를 담은 『방촌 황희 평전』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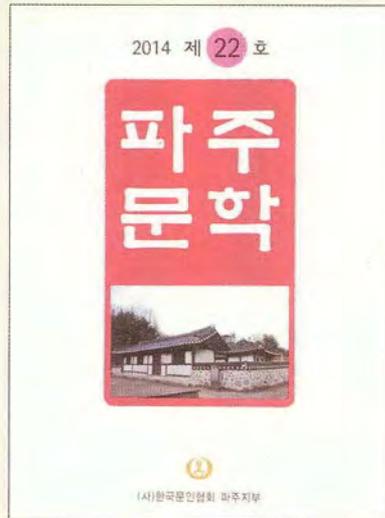
조선 왕조 최장수 영의정으로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법률, 종교,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황희 정승은 승정원 관리인 지신사로 태증을 보좌하면서 "이 말이 누설 된다면, 내가 아니면 네 입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총애를 받았으며, 세종 때는 오랜 연륜을 바탕으로 모든 방면의 정사를 빈틈없이 처리해 왕이 신임을 얻었다. 그는 '해동요순'이라 일컬어질 만큼 찬란한 시대를 성군 세종과 함께 꽃피웠다.

평전은 단편적 일화로만 알려져 있던 황희의 실제 삶과 공적을 역사적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했다. 민음사.



파주연구 제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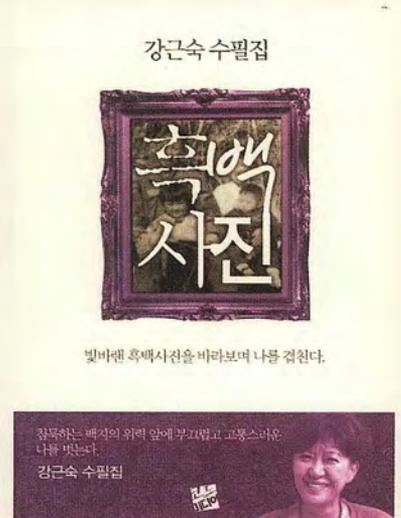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1년간 연구 과제를 수록한 연구지. 2003년 창간되어 2009년 제7호 발간 후, 『坡州文化』와 합분하여 『파주문화研究』로 발간되던 것을 2014년 복간하였다. 이번 8호에는 「파주목 관아 위치에 관한 고찰」(이윤희 향토문화연구소장) 등 총 10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파주문화원.



제22호 파주문학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지켜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문학의 힘이었기에 흠어진 글을 모아 묶으며 밀린 숙제를 끝낸 것처럼 훌가분’ 한 마음으로 강근숙씨가 수필집 『흑백사진』을 선보였다.

『흑백사진』에는 작가가 25년간 써온 글 중에서 고른 51편의 수필이 모여 있다. 파주읍 향양리 출생인 작가는 1988년 제3회 울곡문화제 기념 울곡백일장에서 장원으로 입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필을 공부했으며, 1998년 한국수필에 등단했다. 코드 미디어.



강근숙 수필집 흑백사진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지켜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문학의 힘이었기에 흠어진 글을 모아 묶으며 밀린 숙제를 끝낸 것처럼 훌가분’ 한 마음으로 강근숙씨가 수필집 『흑백시대』를 선보였다.

지연희 시인은, ‘발효된 것은 탈이 없다’는 본인의 말처럼 빛나는 문장력으로 의미를 엮고 있는 한 편 한 편의 수필들 모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다. 바람의 그물을 타고 건너온 견고한 시간속의 빛나는 꽃이다. 라고 평했다.

수필집 『흑백사진』(코드미디어 출간)에는 강씨가 25년 써온 수필에서 골라낸 51편이 들어있다. 파주읍 향양리 출생인 강씨는 1988년 제3회 울곡문화제에서 장원으로 입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필을 공부했으며, 1998년 한국수필에 등단했다. 코드 미디어.

2014년 제28호

파주문화

인쇄일 2014년 12월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파주문화원

발행인 우관제

기획 서교송

교정·교열 현은하

편집·인쇄 (주)역사만들기

파주문화원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2층

TEL. 031-941-2425 / FAX. 031-941-2511

PAJU Cultural Center